



#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30호  
2021년 10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ua.org

news@snuua.org



미주동창회가 포럼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는 등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사진은 한홍택 박사(상단 왼쪽에서 두 번째)의 '셀프 은퇴계획' 설명 장면.

## 미주동창회 포럼 본격 궤도 올랐다

미주동창회(회장 노명호)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포럼이 지난 10월 7일 권용찬 박사의 '한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포럼은 현재 시애틀과 뉴잉글랜드, 미네소타, 시카고 및 남가주 등 다섯군데서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초쯤 미 전역으로 확대된다.

미주동창회는 포럼의 전국화 및 활성화를 위해 이미 한홍택 박사(공대 60·남가주)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외에도 김재훈 박사(공대 72·시애틀)와 김유경 동문(음대 72·뉴잉글랜드), 차재호 동문(농대 84·미네소타), 김정빈 박사(공대 66·남가주), 정호 박사(공대 62·시카고)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가, 포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한 위원장은 우선 현재 각 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 포럼을 미주동창회가 일괄적으로 홍보하고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한옥·지진·시 낭송 등 줌으로 진행 한홍택 위원장 "주제 다양화할 터"

10월 포럼의 스타트를 끊은 권용찬 박사(공대 71)는 안동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 사이트로 지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날 포럼에서 권 박사는 한옥이 제공하는 가치 등 한국의 주거 문화를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버드와 컬럼비아에서 건축디자인을 전공한 권 박사는 저서인 '한옥과 한국주택의 역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되는 등 한국건축학계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어 9일에는 박선영 교수(공대 06)가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에 대해 심도있는 강

의를 해 특히 서부쪽 동문들로부터 질문이 쏟아지는 등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박 동문은 시카고 대학 역사상 최초로 지진학 교수로 임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10월 마지막 포럼은 12일 '공학도가 시를 읽다'는 주제로 손명세 박사(공대 60·샌디에고)가 진행해 관심을 끌었다. 손 박사는 "분석이 목적이 아니라 시를 함께 읽어보며 즐겨 보자"는 것이 포럼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주제를 선정, 보다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포럼 내용을 동창회보에도 실어 미주내 동문들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으로도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월 모임은 서부시간 9일(화) 오후 6시 나노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된다. 이어 서부시간 13일(토) 오전 10시에는 '비엔나로의 초대'로 클래식 음악을 소개한다.

포럼은 줌으로 진행되며 ID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http://snuua-socal.org>).

문의: hahn@seas.ucla.edu(한홍택 박사).  
(관련 특집=10, 11면)

#### 11월 포럼 안내

▶ 나노테크놀로지 9일(화) 오후 6시

▶ 비엔나로의 초대 13일(토) 오전 10시

#### 미주동창회 새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usa30@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시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입니다.

# “재미과기협 연례학술대회 첫 개최 ‘뿌듯’ ”

서문원 박사  
(공대 56)

서문원 동문(공대 56·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석좌교수)은 매우 건강해 보였다. 80 중반인데도 주름이 거의 잡히지 않은 동안이어서 좀 놀랐다.

그런데 뜻밖에도 만성질환이 하나 있다고 털어냈다. 영 고쳐지지 않는다고 했다. 병명은 ‘KDS’. 처음 듣는 병이어서 뭐의 약자냐고 물었다. ‘Korea Deficiency Syndrome’의 첫 글자를 따 만든 조어라는 거였다. 시쳇말로 ‘핵!’ 소리가 절로 나왔다. ‘한국결핍증후군’이라고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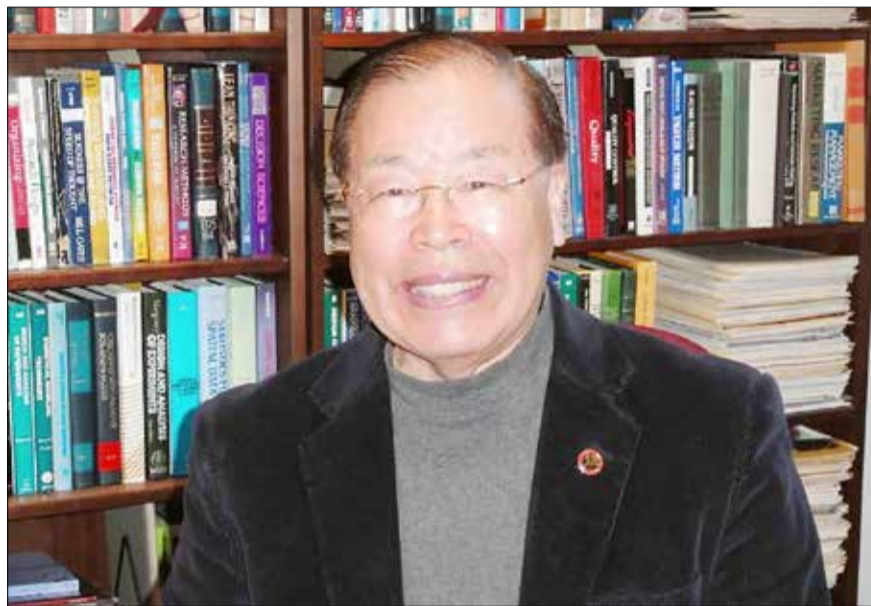
해설(?)을 들어봤다. 한국을 자주 드나들다보면 싫증도 날 법하지만 늘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KDS’ 환자라고 스스로 진단을 내렸다.

어쩌면 서문원의 ‘KDS’가 재미과기협과 학기술자협회(재미과기협·KSEA)의 초석을 깔았는지도 모른다.

올드타이머들은 1994년을 재미과기협의 분수령이 되는 해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해 서문원은 제 23대 회장으로 선출된다. 공약은 연례학술대회(UKC) 개최와 본부건물 마련. ‘돈 한 푼 없는 단체가 무슨...’ 다들 무모하다고 말렸지만 서문원의 ‘KDS’ 끼가 발동했다.

서울에서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을 만나 전액 부담 약속을 받아냈다. 당초 김 회장이 제의한 학술대회 장소는 워싱턴의 5성급호텔인 메이플라워. 서문원은 그러나 ‘럭셔리 대회’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극구 사양했다. 그래서 첫 대회는 래디슨 호텔에서 열렸다.

미 전국과 한국에서 무려 8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서문원에 따르면 한화의 김 회장이 747 점보제트기를 전세내 대한민국 ‘국보급’ 음악인들을 태워 보내줬다고 한다. 축하공연 명목으로. 이를 계기로 재미과기협의 존재가 미주 한인사회는 물론 한국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 창업 지원 ‘세종혁신센터’ 건립 중책... 1억불 목표 2세 교육 위해 미 전역에 1800여개 한글학교 오픈

학술대회의 성공에 고무된 서문원은 이듬해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이번엔 본부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마침 친분을 쌓아뒀던 한승수 주미대사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한국 정관계에 영향력이 상당했다.

청와대를 찾아가 1,000만 달러를 ‘당당하게’ 요구했다. “아니, 서 회장님. 그 많은 돈이 왜 필요합니까?” 비서실장이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워싱턴에 본부 건물이 있어야 해요. 그냥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다. 한인과학자들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세요. 반드시 투자금의 몇 배 이익을 챙길 겁니다.”

마침내 700만 달러가 태평양을 건너 들어왔다.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는 서문원의 배짱과 욕심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처럼 서문원은 ‘마당발’ 과학자로 통한다. 믿기지 않겠지만 서문원의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은 신문사다. 소위 ‘글밭’ 좋은 기자로 이름을 날렸다. 그래서 친구

들중엔 언론계 ‘스타급’ 인사들이 많다. 과기협 서울 사무소를 무상임대해 주겠다고 제의해 온 신문사도 있을 만큼 그쪽에도 발이 넓다.

서문원은 승부사 기질이 남다르다. 왜 기자를 그만뒀는지 이유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유명인들을 두루 만나고 다녔는데 하루는 회의가 들더라고요. 나도 신문에 오래 있으면 저 분들 만큼 유명해질 수 있느냐. 결론은 ‘아니다’ 였습니다. 그 날로 때려 치웠어요.”

1962년 국민소득 82달러의 지구촌 최빈국에 섬유산업을 일으켜 잘 살게 하고 싶은 일념 하나로 유학의 길에 올랐다.

섬유공학과 통계학을 접목시켜 ‘융합과학’의 길을 텃다. 특히 HVI(High Volume Instrument)를 개발해 ‘섬유산업 100년 만의 쾌거’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제섬유학회 회장에 선임되고 섬유공학자에 주는 최고상인 ‘Harold Dewitt Smith Medal’을 받기도 했다.

서문원의 진면목은 그러나 2세들을 위한 한글학교 개설에서 돋보인다. 1974년 노스 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에 한글학교를 오픈해 2세 교육에 힘을 쏟았다. 1981년에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를 발족시켜 미 전역에 1,800여 개에 이르는 학교를 세웠다.

이 같은 공로가 인정돼 서문원은 한국정부로부터 과학기술훈장(옹비장)과 국민훈장(석류장) 등 훈장을 두개나 받았다.

서문원의 삶은 재미과기협과 한국학교의 두 챕터로 요약될만큼 ‘코리아’와 늘 연계돼 있다.

그는 한인이민을 모세의 ‘출애굽(Exodus)’에 빗대 ‘출한국’이라 부른다. ‘출한국’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며 한 사람의 섭리라고도 했다.

서문원은 한마디로 ‘애국자’다. 그에 따르면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미국인은 거의 35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을 ‘한국화’ 시키면 우리도 유대인 못지 않은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재미과기협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서문원은 ‘감투’를 또 하나 썼다. 이번엔 ‘세종혁신센터’ 건립 위원장 타이틀이다. 창업을 지원하는 재미과기협 산하단체다.

목표모금액은 1억 달러. 서문원은 미국에 진출해 있는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사회환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는 절대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펀딩을 이익의 환원, 그리고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

서문원은 ‘세종혁신센터’ 협의차 지난 5일 또 비행기를 탔다. 1년에 최소 두 번은 한국에 갈 정도로 ‘KDS’ 병에 걸려있다.

“우리 언제 좀 비즈니스 클래스 한번 타봐요?” 부인 김지숙 여사의 꾸밈에서 서문원의 대답은 한결 같다. “여보, 우린 ‘미셔널리’ 예요. (재미과기협) 선교사가 ‘이코노미’ 타고 다녀야지요.”

글 안혜정 미주동창회섭외국장(가정대 77)



# 재미 한인 과학인들 최대 잔치 남가주서 열린다

KSEA연례학술대회  
12월 15~18일 개최

‘신경 경제학’ 이대열 동문  
노벨물리학상 게즈 특강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가 주최하는 연례학술대회(UKC)가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LA에서 열린다.

올해 학술대회의 주제는 코로나 19 상황을 반영해 ‘세계보건과 지속가능한 성장추구’다.

대회장은 박병규 재미과기협 회장(버지니아 주립대 공학시스템 환경학 교수), 공동 부회장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인 이우일 박사(전 서울대 부총장)가 맡는다.

기조연설은 삼성호암의학상을 수상한 이대열 동문(존스 홉킨스대, 서울대 경제학



박병규 재미과기협 회장



앤드리아 게즈 교수



이우일 박사

과를 졸업한 이 동문은 일리노이대에서 생물학과 신경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경제학, 신경과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을 섭렵한 뒤 이를 융합해 ‘신경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시했다.

특히 이번 대회엔 지난해 블랙홀 관련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UCLA의 앤드리아 게즈(Andrea Ghez) 교수가 특별강연을 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게즈

교수는 역대 노벨 물리학 수상자 중 네번째 여성이다.

한편 박병규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는 재미 한인과학자들을 비롯해 한국측으로부터 관련기관 정책입안자들과 연구원, 기업인 등 모두 1,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기술 창업벤처 프로그램인 ‘STEP UP’은 차세대 청년들이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해주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킹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회장은 “세계에 유례없는 한국의 빠른 성장의 배경엔 미국내 한인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공이 컸다”며 “이들이 귀국해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대회가 한인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LA 인근에서 열리는만큼 서울대 출신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703) 748-1221/이메일: ukc2021@ksea.org/

웹사이트: https://ukc.ksea.org/ukc2021

장소: Hyatt Regency Orange County (디즈니랜드 인근)

11999 Harbor Blvd., Garden Grove, CA 92840

##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 “E=mc<sup>2</sup>가 무슨 뜻이에요?”

할리우드 섹시스타 캐머런 디아즈. 야구팬이라면 왕년의 홈런타자 알렉스 로드리게스(뉴욕 양키스)가 생각날 것 같다. 그가 현역시절, 양키스 홈게임엔 TV 중계 카메라가 맨 먼저 디아즈를 찾게 ‘루틴’처럼 돼 있었다. 로드리게스의 동거연인이어서다.

디아즈는 그러나 과학계에선 ‘물리학의 전도사’로 통한다. 가방끈이 짧은 여배우가 과학의 천재? 고등학교도 모델일을 하느라 간신히 나왔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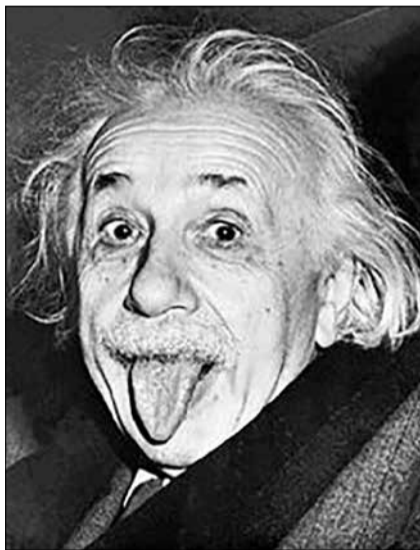
연유는 이랬다. 언젠가 디아즈는 영화잡지 ‘프리미어’에 특집으로 소개됐다. 기자가 인터뷰 말미에 물었다. “더 할 얘기 없어요?” 디아즈가 정색을 하고 질문을 던졌다. “E=mc<sup>2</sup>가 뭐예요? 알아먹기 쉽게 설명 좀해 주세요.”

세상에, 아무리 배우라지만 ‘국민 물리공식’을 모르다니. 기자는 쉬운 말로 풀어줬다. 그제서야 디아즈는 궁금증이 풀린 듯 환한 표정을 지었다. 디아즈는 길거리 포스터나 티셔츠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 공식에 늘 의문을 품었다. 분명 엄청난 역사적 과장이 함축돼 있을텐데...

잡지사와의 인터뷰가 끝날 무렵 디아즈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문을 했다. “아인슈타인처럼 찍어주세요.” 그러면서 혀를 쏘~옥 내밀었다.

아인슈타인이 대중과 친숙해진 것은 사진 덕분이다. 그가 72세 되던 날 제자들이 생일상을 크게 차려줬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저마다 “웃어주세요, 차~즈” 하며 못살게 굴어 짜증이 났다. 그때 UPI통신 사진기자가 허겁지겁 뒤늦게 나타났다. 그 역시 “차~즈” 하며 손짓을 해댄 것. 화가 난 아인슈타인은 치즈 대신 혀를 날름거렸다. “메~롱.”

사진을 본 데스크는 입이 딱 벌어졌다. “자네 세기의 특종을 했구먼.” 혀를 길게 내민 아인슈타인의 사진은 다음날 전세계 신문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으니 보는 사람마다 배꼽을 잡을 수밖에. “아인슈타인도 우리와 똑 같네. 장난도 칠 줄 알고.”

디아즈의 에피소드가 알려지자 과학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보더니스가 무릎을 쳤다. 옳커니 디아즈를 소재로, 또 디아즈와 같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책을 한 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베스트셀러가 바로

E=mc<sup>2</sup>다.

책은 상대성 이론의 해설서도, 또 아인슈타인의 전기도 아닌 방정식의 일생을 따라가는 특별한 이야기를 담았다. 그러면서 디아즈를 물리학의 전도사로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에너지(E)는 질량(M)에 빛의 속도(C)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는 공식. 과학자들은 세상을 E=mc<sup>2</sup> 이전과 이후로 분류한다.

아인슈타인은 질량이 속도의 터널을 지나면 엄청난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그의 나이 갓 스물여섯 살에 발견했다. 이 공식이 훗날 원폭이라는 가공할 무기로 탈바꿈하며 나아가 우주의 생성과 소멸을 풀어줄 열쇠라는 걸 그가 알았을까.

다시 디아즈의 얘기로 돌아가 보자.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기 선생을 ‘호기심’이라고 털어놨다. 배역에 대한 호기심이 그를 연기에 몰입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과의 공통점이 바로 이게 아닌가 싶다. 그의 지적 호기심과 열정이 그를 인류 최고의 천재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는가.

미국이 매년 노벨 과학상을 휩쓸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디아즈와 같은 인물이 많아서 일 것 같다. 뭐니뭐니 해도 창의력은 호기심에서 나오기 때문일 터.

‘이번엔 꼭~.’ 5천만 한국인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이 또 한국을 비껴갔다. 어쩌면 한국(계) 최초의 과학분야 노벨상은 재미과기협 회원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12월 열리는 과기협 연례 학술대회는 그 전초전이다. 편집고문 (문리60)

김영태  
(미대 73)

WEST

낚시

## 엘로테일 낚아 대회 출품해 2등 '영예'

물고기가 낚싯대에 걸려 팽팽해질 때의 그 느낌. 입질이 와서 낚싯줄이 튕겨질 때의 그 흥분. 낚시 동호인들이라면 결코 잊지 못할 스타일이다. 그래서 '낚시는 손맛'이라는 말이 나왔지 싶다. LA의 김영태(미대 73) 동문과 메릴랜드 강형석(공대 86) 동문의 '서부 캘리포니아 vs 동부 메릴랜드' 낚시 배틀을 소개한다. 어느쪽이 승자인지는 독자들의 판단으로 남겨둔다.

### 일년내내 다양한 낚시 즐겨 스트레스 날려주는 '비타민'

내가 처음 낚시에 입문한 건 1973년.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됐을 무렵이다. LA 인근의 벤투라(Ventura)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나가 흑돔을 잡은 것이 계기가 돼 낚시에 낚였다.

처음엔 흑돔이 영어로 뭔지 몰라 선원에게 이 생선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거의 반세기 전 일인데도 그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씨페~" 내게 욕을 하는 줄 알았다. 정말이지 내겐 그렇게 들렸다. 물고기 이름이 뭐냐고 물었는데 욕지거리를? 인종차별을 당한 것 같아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미국인이 어떻게 한국 말을 알고 욕을 할 수 있지?

나중에 알고 보니 흑돔이 영어로 'sheephead'였다. 그 선원이 빨리 발음하다 보니 내겐 '씨페'로 들렸던 거다. 영어가 짧았던 시절의 웃고픈 에피소드다.

지난 7월 일본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여자배구 '4강신화'를 이끈 김연경 선수의 별명이 '식빵'

안았다. 이를 기념해 박제해 놓았는데 우리집 가보제 1호로 모셔놓고 있다.

무엇보다 캘리포니아에선 1년 내내 다양한 종류의 낚시를 즐길 수 있어 가히 '낚시의 천국'이라 불릴만 하다.

보통 서피스 피싱(surface fishing)과 바텀 피싱(bottom fishing), 웰로 워터(shallow water) 등으로 나뉜다.

'서피스'는 글자 그대로 해수면 근처에서 노는 물고기를 잡는 낚시를 말한다. 추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바늘에 미끼를 달아서 잡는다.

미끼로는 살아있는 정어리나 멸치 등 '라이브 베이트'(live bait)를 쓴다. 늦봄부터 늦가을까지 수온이 비교적 높을 때 즐길 수 있다. 많이 잡히는 어종은 도라도(마히마히), 화이트 시베스(민어), 참치 등이다.

'바텀' 낚시는 추(10~16 온스)를 달아 100~600 피트 정도 내려서 잡는데 미끼는 주로 쭈꾸미를 사용한다. 수심 종류의 우렁이 잡힌다. 반면 '웰로' 낚시는 수심 100 피트 내외에서 잡는 생선들이다. 광어는 물론이고 흑돔, 링카드(lingcod) 등이 많이 잡힌다.

## 100파운드 넘는 블루핀 투나 고생한 만큼 '짜릿한 손맛'

언니'란 걸 알고 혼자 피식 웃었다. 반세기 전 내가 겪은 사건과 오버랩돼서다.

솔직히 '식빵'이 뭔지 몰라 인터넷을 검색해 봤다. 세상에... 김연경 선수가 시합 도중 경기가 안풀리면 혼잣말로 '18'을 했는데 팬들이 그걸 순화해서 '식빵'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헐! 알고 보면 '씨페'나 '식빵'이나 오십보 백보다.

낚시 얘기로 되돌아간다. 캘리포니아 낚시의 백미는 블루핀 투나, 엘로핀 투나, 엘버코어, 스킵잭(가다랑어) 등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블루핀 투나가 단연 으뜸이다.

보통 100 파운드가 넘는 투나를 카우(cow)라 부르는데 황소처럼 무거운 투나를 끌어올리려면 팔이 엄청 아프다. 그러나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겠다. 영어의 'no pain, no gain'는 바로 카우 낚시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엘로테일(하마찌) 또한 캘리포니아 낚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종이다. 지난 1993년 50파운드가 넘는 엘로테일을 잡아 유명세를 탄 적도 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소재한 국제낚시연맹(Int'l Game Fish)에 출품, 뜻밖에 2등의 영예를

바다낚시의 매력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준다는 점이다. 직업상(CPA) 늘 숫자와 씨름해야 하는 내겐 낚시가 필수 비타민과 같은 존재다.

낚시배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배를 이용할 수 있다. 차터 보트는 하루나 그 이상 배를 통째로 빌려 나가는데 20명 정도 승선하는 배는 성수기의 경우 하루 3,000~4,000 달러. 팀은 배값의 20%를 주면 된다.

낚시를 하다보면 조황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공치는 날이라도 집에 오면 "또 언제 나갈 수 있나"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낚시다. 잡으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못잡아도 그날 하루 바다에서 들여마신 음이온과 산소만 생각해도 본전이 아깝지 않다.

미국 낚시꾼들이 즐겨 인용하는 말로 글을 마무리하겠다.

The worst day fishing is better than the best day working.(아무리 최악의 낚시일지언정 최고로 일을 잘한 날보다 훨씬 낫다.)

낚시에 관한 문의라면 언제나 환영이다. 213-739-1000. 김영태 (미대 73·CPA)



100 파운드가 넘는 블루핀 투나. 캘리포니아 낚시의 백미로 꼽힌다.



김영태 동문은 47파운드 짜리 엘로테일을 잡아 세계낚시협회가 주관한 연례대회에서 2등상을 받았다.

# ‘대물’ 바닷가재 낚아 지역 언론에 소개

## 대서양 특산물 ‘타우톡’ 15파운드가 개인 기록

가없는 바다와 하늘만 보이는 망망대해. 파도가 덮치면 고깃배는 사방이 물벽에 갇힌다. 무섭다. 그러나 학창시절 읽었던 ‘바다와 노인’의 한 구절을 떠올리며 힘을 낸다. ‘사람은 파멸당할 수 있을 망정 패배하지는 않는다(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소설에서 헤밍웨이는 거대한 몸체의 청새치(marlin)를 ‘사냥’ 하지만 나는 주로 ‘톡’을 낚는다. 동부에선 ‘타우톡(tautog)’을 줄여서 그냥 ‘톡’이라 부른다. 돔 종류로 대서양의 특산물이다.

길이는 3피트 남짓. 무게는 평균 3.7파운드 가량이다. 세계최고기록은 29파운드라고 하는데 내 개인으로는 15파운드다. 결코 나쁘지 않다. 톡은 바위 틈에 살기 때문에 잡기 어렵고 낚시에 걸린다 해도 끌어내는데 기술이 필요하다.

모양새도 ‘어글리’ 하다. 검은 줄이 몸을 덮고

무게가 거의 7파운드나 되는 ‘대물’이었다. 지역신문에도 기사가 실려 낚시꾼들 사이에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낚시는 뭐니뭐니해도 선장을 잘 만나야 한다. 팀도 넉넉히 주는 등 평소 단골로 삼아와야 ‘핫스팟’으로 안내한다. 자신이 애써 가꾼 어장으로 아무나 데려가지 않는다. 실력있는 선장의 배를 타려면 보통 1~2년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나는 원래 낚시에 문외한이었다. 지인을 성당으로 인도하기 위해 가끔 저녁을 같이 했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회와 와인을 들고 찾아왔다. 그 친구가 낚시 얘기를 열심히 했지만 듣는 등마는 등 귓등으로 흘렸다. 너무 맛있어 회 먹는데만 집중한 것이다.

회에 쫓긴 나머지 그 친구를 따라 배를 타기 시작했다. 사시미 칼과 낚싯대도 장만하는 등 본격적으로 낚시의 길로 들어섰다.

낚시를 가면 입질이 없이 아주 한가하고 고요한 때가 종종 있다. 이때는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 있는지 수평선 위를 살펴보곤 한다. 예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고백하건대 아직



## 친구 성당에 인도하려다 회맛에 반해 되레 ‘낚여’

있어 이곳 사람들은 ‘블랙피시’라 부르기도 한다. 스킨을 베껴내면 그러나 하얀 속살이 드러난다. 비릿한 내음도 나지 않는다. ‘감칠 맛’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터.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꼭 채워서 이틀 정도 지나면 숙성이 돼 아주 맛이 좋다. 매운탕은 머리 불에 붙어있는 살이 으뜸이다. 아들이 귀뜸해줘 그 맛을 알았다.

요즘은 남획을 해서 그런지 ‘톡’이 씨가 말라가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철저히 규제한다. 메릴랜드에선 한 사람이 18인치 이상 되는 놈으로 4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 근해에선 잡기가 어려워 배를 타고 멀리 35 노트씩 마일 떨어진 곳까지 가서 낚시줄을 내린다.

횡재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지난 7월 쯤인가. 처음엔 나뭇가지가 걸린 줄 알았다. 그냥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어 낚시줄을 천천히 당겼다. 그런데 이게 웬일. 바닷가재가 머리를 빼꼼 내밀지 않는가. 놀라움 반, 기쁨 반. 얼마 안가 몸집이 드러났다. ‘톡’은 미끼로 ‘스노 크랩’을 쓰는데 랍스터가 그걸 먹겠다고 덤벼들다 걸린 것이다.

그 친구를 성당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내가 그 친구에게 되레 낚인 것 같다.

낚시를 하다보면 교훈을 얻기도 한다. 한번은 2박3일 낚시 원정에서 톡을 비롯해 블랙 시베스, 트리거 피시 등 아이스박스 두 개를 짹짹 채워 가져왔다. 자랑스럽게 보여줬더니 아들이 내게 귓속말을 했다. “아빠, 이 많은 물고기 다 어떻게 할거예요?” 아들은 키친에 있는 엄마를 힐끗 쳐다보며 사뭇 걱정된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내(황태윤·영어교육과)와 나는 서울대 동문이다. 그제사 내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어찌랴. 이미 옆질러진 물인 것을.

‘과유불급’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서부와 ‘낚시배틀’ 특집을 꾸민다고 들었다. 동부가 이겼으면 좋겠다. 왜? 잔잔한 태평양과는 달리 대서양은 거칠다. 헤밍웨이가 왜 ‘바다와 노인’을 썼겠는가.

톡 낚시는 11월부터가 시즌이다. 벌써부터 손목에 스릴이 느껴진다.

강형석(공대86·존스홉킨스대 응용물리학 연구소)



‘몬스터’ 바닷가재를 잡아 지역 신문에 보도 기사가 실렸다.

불과 세시간만에 이 많은 물고기를 낚아 올렸다.

# 뉴잉글랜드도 청년들 모임 '관악회' 출범

동창회가 발전하려면 젊은 동문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동창회 마다 젊은 동문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가능한 한 재정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7월 새로 임기를 시작한 뉴잉글랜드 지부 김유경(음대 72) 회장의 취임 첫 일성은 젊은 동문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김 회장이 젊은 동문 모임인 '관악회' 준비 소식을 전해왔다.

모임 격려를 위해 지부에서 1000달러를 지원했고 노명호 회장의 미주동창회에서도 1000달러를 보냈다. 지난 달 25일 열린 관악회 첫 모임 소식을 회장을 맡은 신진우(농생 04) 동문이 보내왔다.

## 관악회 회장은 2004학번 신진우 동문 이현구(98), 양나래(08) 동문 적극 도와 미주동창회도 격려 위해 1천달러 지원

'만남'은 '맛남'이었습니다. 긴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며, 우리는 음식보다 소식을 배고파 했었나 봅니다. 9월25일 토요일 보스턴 근교 워터타운의 아스널 파크에서 열린 제1회 관악회 바베큐 파티는 70명이 넘는 동문의 열띤 참여 아래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 70여 동문 모여 바베큐파티

전날 자정까지도 비 예보가 있었지만 우산을 들고라도 참여해준다는 동문들의 의지에 비구름은 도망가 버렸고 청명한 가을 하늘과 햇살 아래 모두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악회는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SNUAA-NE)의 차세대-청년 모임으로, 동창회 내 동호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있었던 제 18대 총회에서 전임 회장이셨던 김정선(문 66) 동문의 통큰 결단과 동창회의 후원으로 형태를 갖춰 출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악회 회장과 섭외간사를 맡게 된 신진우(농생 04) 동문과 학술간사인 이현구(자 98)동문 및 양나래 동문(음 08)이 함께 관악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을 거듭한 끝에 1년에 2차례 식사 모임을 주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회비 없이 후원금으로 운영

젊은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비 없이 후원금으로 운영한다는 기초를 세웠는데 서울대 미주동창회에서도 이를 응원해 주시고 특별후원을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준비 기간 동안 밀착형, 섬김형 리더십으로 모든 방향에서 아낌없는 도움을



뉴잉글랜드 지부의 청년 모임 관악회가 지난 9월25일 아우회로 첫 모임을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했다.

주신현 19대 회장 김유경(음 72) 동문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처음 발족한 이 모임을 환영 및 응원해 주시고 기꺼이 함께해주신 관악회 동문 여러분들 덕에 이 행사가 빛날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면책 동의서를 요청드렸음에도 전 동문이 기꺼이 수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성원과 도움에 지면을 통해 다시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COVID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야외 바베큐 행사로 기획된 모임은 1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바베큐팀으로 수고해준 10명의 선발대 동문들이 숯과 고기를 준비하는 동안, 동문들이 삼삼오오 장소에 모이기 시작했고 반가운 마음에 모두들 서서 소개하고 이야기 하는 동안 한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에 감탄

바쁘고 치열한 미국 생활 가운데서, 따뜻한 동문애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안인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행사의 백미는 풍성한 한식 케이터링(연어, 농어, 보쌈, 잡채, 오징어무침, 닭볶음탕, 밥, 샐러드, 과일)과 바베큐(스테이크, 삼겹살)였습니다.

참여한 모든 동문들이 맛있는 음식에 감동하고, 놀라운 바베큐팀의 요리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다채롭고 풍성한 음식만큼이나 다양한 인연이 어우러진 모임이었습니다. 배우자, 자녀와 가족동반으로 참석해 주신 동문들도 10가정이 넘었습니다. UC 버클리에서 회계학 박사과정 중인 황진성(경영 석사 16) 동문은 "팬데믹 후 정말 오랜만에 MIT에서 회계학 박사과정 중인 아내(윤서우, 경제 11)를 만나러 보스턴을 잠깐 방문했는데, 뜻깊은 동문 모임에 참석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는 소감을 나눠주셨습니다.

자녀 동반으로 와주신 많은 가정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잔디밭과 공원 놀이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7년만에 재회한 조교와 학생

사제지간의 인연도 있었습니다. 올해 9월 터프츠 경제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백채원(경제 09) 동문과 MIT 박사과정 윤서우(경제 11) 동문은 서울대 재학시절 조교와 학생이었는데, 7년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HMS/MGH 박사후 연구원인 신진우(농생 04) 동문과 뉴욕에서 놀러온 콜롬비아대 박사후 연구원인 김준원(공대 09) 동문도 조교와 학생의 인연 가운데 1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다들 생각지도 못한 깜짝 선물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 출신의 동문들이 어우러진 것도 모임의 큰 의의였습니다. 최근 서울대는 연구중심대학을 추구하고 학문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학부조직이 없는 대학원 및 단과대별 협동과정 전공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원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이뤄나가며 매년 천 명 가량의 박사를 배출하고 있는데, 그 주역들이 관악회의 멤버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HMS 박사후 연구원인 윤혜진(의대 09) 동문은 "기초 및 임상 의학을 연결하는 의과학과는 설립된지 11년이 되어 다수의 동문을 배출했는데, 관악회 모임을 통해 보스턴 지역의 의과학과 동문 및 다양한 전공의 동문들을 만날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소감을 나눠주셨습니다.

### 98년생과 98학번이 어우러져

98학번도 있었고, 98년생도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차세대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이제 막 유학생활을 시작한 학생부터, 교수님들, 회사의 중역으로 일하시는 분들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넘는 세월의 격차가 무색하게도 바베큐 파티는 참된 소통과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분위기가 이어져, 연계하는 역할이 발전되며 관악회와 전체 동문님들간의 활발한 교류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관악회는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의 미래이지만, 동문 선배님들은 저희 관악회 멤버들의 미래입니다. 모두가 넉넉한 마음으로 참여와 후원을 해주신다면 동창회의 발전을 통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뜻깊은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사진 신진우(농생 04)



10명의 동문이 바베큐팀을 자원해 고기를 굽고 있다.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동문들.



조지아 서울대 동문회가 지난 12일 둘루스 맥대니얼팜공원에서 19개월만에 야유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선배님, 후배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 조지아

#### 1년7개월 만에 첫 야유회 80여명 참석 즐거운 시간

조지아 서울대 동문회(회장 김재호)가 지난 9월12일 둘루스 맥대니얼팜 공원에서 올해 첫 야유회를 개최했다. 서울대 동문회가 공식 행사를 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7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야유회에서는 동문 및 가족 80여 명이 참석, 임원진들이 준비한 맛있는 식사와 여흥 등으로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특히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낱말 맞추기에서는 연신 웃음꽃이 그치지 않았으며 전신 운동인 접시돌리기 시간에도 모두가 즐거운 땀을 흘리며 흥겨워했다.

김재호 동문회장은 “아직 코로나 상

황이 완전히 끝나지 상황임을 감안해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다”며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선배, 후배들이 모처럼 만나 즐겁게 얘기를 나누며 유쾌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조지아 서울대동문회는 오는 12월 5일 연말송년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을 살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문의: 404-372-2621

글·사진 김재호 조지아 동창회장(공대80)



참석자들이 전신 근육 운동인 접시돌리기를 따라 하고 있다.

### 동문 장학금 드립니다

#### 자녀 및 대학원생 대상 연말까지 이메일로 접수

조지아 서울대 동문회에서 후배 및 동문 자녀를 대상으로 2021~2022 학기 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서울대 동문의 직계 후손으로 대학생 또는 대학 입학 예정자와 서울대 동문 중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이면 된다. 소정의 신청서과 성적 증명서, 에세이 등 제반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 12월 31일까지 최화진 장학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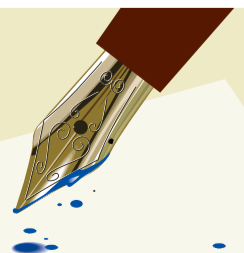
에게 이메일(hkim@unca.edu)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 해에는 모두 5명을 선발 동문 장학금을 지급했다.

기금은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서울대 후배 및 동문 자녀들을 위해 주중광, 허지영 동문 등 여러 동문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또 동문들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골프대회를 통해서도 장학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조지아 서울대 동문회는 매년 한미장학회 통해서도 지역 사회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문의는 최화진 장학위원장에 하면 된다.

### 원고 모집합니다

-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usa30@gmail.com 로 보내주십시오.



# 멋진 노래, 명품 도시락 ... 오랜만에 흥겨운 시간

## 뉴욕

### 42회 총회 및 야유회 개최 금영천 회장단 공식 출범

서울대학교 뉴욕동창회의 42회 총회 및 야유회가 25일 Rockland Lake State Park 에서 130 여명의 동문과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 42대 금영천(약대 72)회장은 김병순(사회대 82)사무총장과 임원단을 발표, 인준을 받고 회칙개정과 감사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인준했다. 조상근(법대 69) 직전회장에게 공로패, 정해민(법대 55), 홍종만(공대 64), 양인회(농대 58) 동문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특히 이번 42대 회장단에서는 각 단과대학의 이사들에게 모교의 상징인 교표와 성함이 새겨진 문진을 각 이사들에게 전달하며 앞으로 2년간의 활동에 대한 깊은 성원을 당부했다.

이준희(음대 95) 음대회장이 준비한 '작은 축하 음악회'는 황소희(음대 95), 서지혜(음대 12), 조한나(음대 12), 한종원(음대 13) 출연으로 청명한 가을 날씨와 함께 멋진 노래를 선사하면서 야유회를 더욱 빛냈고, 팬데믹 이후의 소원했던 동문들간의 우애를 북돋우는 시간이 됐다.



제 42회 뉴욕 총동창회 및 야유회가 지난 25일 Rockland Lake State Park 에서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체 회원의 기념사진 촬영 후 특별히 준비된 명품 도시락, 그리고 간호대에서 준비한 과일과 후식으로 점심식사를 즐겼고, 김정필(공대 71), 손대홍(미대 79) 동문의 진행으로 푸짐한 경품과 함께 재미있는 퀴즈 순서가 이번 모임의 흥을 더욱 돋구었다.

특히 송학린(법대 59) 동문이 기증한 고급 와인 108병은 기념타월과 함께 참가자 모두에게 선물로 전해지면서 참가자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금영천 신입회장은 10월13일 수요일 추계

골프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가지 제약을 준수하면서 동문들간의 활발한 연결과 협동으로 유대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을 재임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회장은 특히 80년대 후반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골든클럽과의 긍정적인 교류를 통해 유익한 만남들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송년회에서 수여되는 뉴욕지부 장학금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중심으로 뉴욕, 뉴저지주에 위치한 대학원에서 석

사 또는 박사과정에 있는 모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서 교부와 문의는 조상근(법대 69) 장학위원장(전화 (201)913-0565), 금영천 회장(전화 (718)791-4397) 하면 된다.

42대 회장단과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금영천(약대 72), 이사장 성기료(약대 57), 상임고문 정해민(법대 55), 제1 부회장 김정필(공대 71), 사무총장 김병순(사회대 82), 감사 오순문 (사대 68).

글·사진 허유선(가정대 83)

뉴욕총동창회 골든 클럽 회원들이 모인 테이블.



뉴욕총동창회 약대 동문들이 모인 테이블.



뉴욕총동창회 미대 동문들이 함께 한 테이블.



# 동문·가족 300여명 웃음소리 드높았다



이번 행사는 가을맞이 야유회 겸 운동회로 진행해 동문들이 청백으로 팀을 나눠 게임을 했다. 기념촬영도 청백팀이 따로 모여 앉았다.

## 남가주

### 가을맞이 야유회 겸 운동회 열려 참가비 받지않고 푸짐한 선물까지

“하하 호호 깔깔깔...” “영차영차 파이팅” 캘리포니아주 한인 밀집지 오렌지카운티의 명소인 부에나파 랩프 B. 클락 공원에 유쾌한 함성과 웃음소리가 쉬지 않고 울려 퍼졌다.

지난 10월2일 토요일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최용준, 수의대 81)가 주최한 ‘가을맞이 동문 가족 대잔치’가 무려 30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가을맞이 야유회 및 운동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는 근래 들어 최대 인원이 참여, 총동창회 임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갈비 바비큐 식사와 간식을 즐기고, 또 최용준 회장이 직접 사회를 맡아 진행한 ‘청백전’ 운동회와 오락에 흠뻑 빠져들며 청명한 가을날

을 만끽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백으로 팀을 나눠 가을 운동회 기분을 낸 것이 특히 좋았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제기차기, 신발 멀리 던지기, 춤추며 짝짓기 같은 게임을 통해 많은 동문들의 특기와 춤 솜씨를 뽐내며 다 같이 웃고 흥겨워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별도의 회비를 받지 않고 무료(동창회 연회비는 별도)로 진행돼 많은 동문과 가족들이 부담 없이 참여해 멋진 가을날 오후를 즐길 수 있었다. 또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푸짐한 선물이 참석자 전원에게 제공됐다.

최용준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모든 단과대학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통해 하나 되는 동문애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열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행사 전부터 예약을 해주시고 약간 더운 날씨에도 행사에 참여해 질서 속에 진행에 협조해주신 모든 동문과



오랜만에 만난 동문 가족들이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행사를 위해 후원을 해주신 동문들과, 일손이 부족했던 임원들을 도와 자진해서 봉사를 해주신 여러 동문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남가주 총동창회는 올해 2차례의 행사를 남겨놓고 있다. 오는 11월6일 토요

일에는 ‘원로 선배 초청 오찬 행사가 오전 11시부터 LA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리며, 마지막으로 12월11일 토요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겸한’ 남가주 총동창회 송년 대잔치 행사가 오후 3시부터 놀워의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다.

글·사진 김중하(인문 85)



남가주총동창회 임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 ‘가을맞이 동문 가족 대잔치’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참가비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문들에게 나눠줄 푸짐한 선물도 준비했다.

# LA는 좌우로, 시애틀은 아래 위로 흔들려



박선영  
(공대 06)

## 박선영 교수의 지진이야기

오늘 포럼에는 동부에 살고 계시는 동문들은 한 분도 없는 것 같다.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서 일 것 같다. 정말 그럴까.

1755년 12월 4일자 펜실베이니아 가젯 1면에 지진과 관련한 기사가 실려 있다. 신문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흔들림이 있었다’며 ‘굴뚝이 무너지는 등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쓰여 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와있다.

기사만 읽어봐도 당시 주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문 기사를 근거로 추측하면 당시 이 지역을 강타한 지진은 규모 6.0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처럼 지진이 서부쪽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300~500년 주기로 큰 규모의 지진이 온다고 가정하면 ‘지진 안전지대’는 사실 없다고 봐야 한다.

지진학자들은 역사적 기록을 중시한다. 몇 백년 전에 일어난 지진을 이 보다 더 정확히 기술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쓰나미(‘항구를 덮친 파도’라는 뜻)의 본고장 일본에도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이른바 전조증상, 즉 흔들림이 없이 갑자기 몰아닥치는 ‘고아 쓰나미(orphan tsunami)’도 1700년 일본의 문헌에서 유래했다.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수십만명의 인명을 앗아간 쓰나미도 알고 보면 ‘고아 쓰나미’다.

왜 이같은 자연재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1800년대 중반 산업혁명이후 지구의 온도는 1도 가량 올라갔다. 뜨거워졌다는 얘기가.

캘리포니아와 시애틀 등 서부지역을 휩쓸다시피한 지난해 산불도 따지고 보면 기후변화 탓이다. 미 전역은 물론 유럽에 서까지 연기가 관측됐더니 그 규모를 짐

작할만 하겠다.

그래서 요즘 지구과학은 학문적 배경이 아주 다양하다. 물리학과 화학, 생화학, 행성과학, 대기 및 해양과학 등의 여러 학문이 어우러져 연구를 한다.

지진을 연구하려면 맨 먼저 지구내부구조를 알아야 한다. 시추(drilling)를 해서 샘플을 획득, 분석을 해야 한다. 쉽게 말해 구멍을 뚫는 것인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진의 파동은 세 종류로 나뉜다. 맨먼저 P파(Pressure Wave)가 오고 곧 이어 2차 파동인 S파(Shear Wave)가 밀어 닥친다. 마지막이 표면파(Surface Wave)다.

그런데 P와 S의 두 파동은 우리가 감지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표면파는 매우 즉각적이고 파괴적이다. 우리가 지진이 왔다고 할 때는 바로 이 ‘표면파’를 말하는 것이다.

P와 S파에 이어 표면파가 덮치기 까지 걸

캘리포니아의 고층빌딩은 좌우 흔들림을 감안해 지진대비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샌앤드리아스 단층(San Andreas Fault)이 관통하고 있어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 대체로 LA처럼 분지(soft soil site)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진을 더 느끼고 피해가 크다.

반면 시애틀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와는 달리 아래 위, 곧 수직으로 땅이 흔들린다. 수평과 수직, 어느 쪽의 흔들림이 더 위험한지는 한마디로 단정 짓기 어렵다. 진원지와 방향 등에 따라 파괴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구 곳곳엔 지진계가 설치돼 있어 흔들림이 감지되면 즉각 기록한다. 요즘 지진계가 얼마나 정밀한지 학계에서 회자되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몇해 전 시애틀의 프로풋볼(NFL) 구단 시혹스의 경기에서 발을 구르는 등 홈팬들의 광적인 응원이 지진계에 잡혔다는 것이다. 얼마나 과격한 응원을 펼쳤는지 알만 하겠다.

요즘은 휴대폰이 갈수록 ‘스마트’해져 지진계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로 작동되는 휴대폰엔 ‘My Shake’ 앱이 장착돼 있어 흔들림이 있을 경우 이를 즉각 알려준다.

지진계는 꼭 지진을 감지하는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산사태도 판과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지진계가 이를 측정해 위험을 알려주기도 한다.

지진계는 지구 뿐 아니라 행성의 내부구조를 연구하는데도 긴요하게 쓰인다. 지난 2018년 발사된 ‘인사이트 미션’ 화성 탐사선에도 지진계가 장착돼 있다.

전세계에서 규모 6.0 정도의 지진은 1주일에 한 번꼴, 규모 7 이상은 연 20개 정도로 발생한다.

나는 3D 프린팅으로 지구구조를 100만분의 1로 축소해 미니 모델을 만들어 내는데 연구역량을 쏟아부을 작정이다. 내 연구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박선영 교수는

- \*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 경제학복수 전공
- \* 하버드대 박사학위
- \* 칼텍 박사 후 과정
- \* 시카고 대학 조교수 임용



캘리포니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샌앤드리아스 단층 지진대는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샌앤드리아스 레이크에서 시작돼 샌디에고까지 무려 750여 마일에 이른다.

## 기후변화 탓 ‘지구가 뜨거워졌다’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

현재 기술로는 아무리 파봤자 지표면에서 고작 7.6마일까지다. 아직 절반도 못 뚫은 것이다.

지진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지구엔 여러개의 판(plate)이 있는데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많이 일어난다. 시애틀 쪽에서는 판과 판이 충돌하는 반면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에선 판이 어긋나 지진이 발생한다.

그래서 시애틀 등 북서부쪽에선 과거 화산이 많이 폭발했다. 그런데 화산이 많은 곳은 자연경관이 뛰어나다. 자연의 아이러니라고 할까. 마운트 레니어 국립공원은

리는 시간은 진원지와 계측지간의 거리에 따라 다르다. 거리가 멀면 조기경보가 가능하지만 가까우면 거의 불가능하다. 조기경보가 10초 내외라고 하면 이 시간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 어렵다.

캘리포니아의 각급 학교에선 지진경보가 울리면 즉각 책상 밑으로 대피하도록 훈련을 시킨다. 밖으로 나가면 안전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선 불가능에 가깝다.

또 흔들림은 수평(좌우)과 수직(상하)의 두 종류로 나뉜다. 지난 1994년 LA의 노스리지 지진은 좌우 양쪽으로 흔들렸다. 규모 6.7로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이후

##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usa30@gmail.com 로 보내주세요.



# 600년 이어온 안동 하회마을을 돌아보다



권용찬  
(공대 71)

## 권용찬 박사의 한옥이야기

뉴잉글랜드 동창회가 주관하는 뉴잉글랜드 포럼에서는 지난 10월 7일 목요일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과 양재마을을 통해 나타나는 조선시대 씨족마을의 전통적 건축양식과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회장 김병국, 공 71) 와 공동 주최한 행사로 2010년에 안동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 사이트로 지정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권용찬 박사 (공대 건축학과 71)가 강의를 맡아 주었다. 권용찬 박사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컬럼비아 대학교 건축 디자인 석사,

성을 고려해 겨울 외풍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각형 모양으로 지었으며 앞쪽에 마루를 놓아 고온다습한 여름에 대비한 모양새를 지니고 있다. 마을에는 당시 양반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정자, 정사, 서당과 서원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중에서도 사방으로 탁트인 open pavilion식으로 지은 병산서원의 만대루는 조선시대 건축의 백미로 알려져 있다.

이번 포럼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옥의 시공과정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3D 시뮬레이션 영상이었다.

한옥은 땅위에 주춧돌(foundation)을 놓고 기둥을 세운 후 미리 가공해둔 부재를 사용하여 맞춰 올리는 조립식 주택으로 예전부터 집의 골격이 완성되면 지붕을 올리기 전, 집주인이 상량식 잔치를 크게 하여 일꾼들을 대접하는 전통이 전해내려오고 있다. 나무, 흙, 기와로 지어진 한옥의 지붕은 무게가 상당한 편인데 그 이유는 지반이 땅위에 있으므로 지붕의 무게로 아래쪽의 골조를 눌러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무리짓는 추녀의 날렵한 곡선미는 목수의 솜씨와 예술적 감각을



17세기에 지어진 서예 류성룡의 종택 충효당(보물(제414호). 류성룡이 평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는 말을 강조한 데서 유래했다.



병산서원. 10년 전 하회마을에 이어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 풍산 류씨 집성촌 '세계 문화유산'에 올라 3D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시공 과정 소개

하버드대 방문학자(visiting fellow)를 거쳐 현재 보스톤의 엘쿠스 만프레디 (Elkus Manfredi Architects)에서 일하고 있다.

하회, 양동은 고려말기 허씨, 안씨, 류씨 세 씨족이 이주해 형성된 마을이다. 그중 풍산 류씨가 대를 이어 600년간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마을 형태와 건축양식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풍산류씨는 조선시대 대유학자 류운룡과 징비록의 저자 류성룡 형제를 배출한 가문이다.

낙동강의 지류인 화천강, 뒤로는 화산과 솔숲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입지조건을 가진 두 마을은 풍수지리학상으로 연화부수형(물위에 뜬 연꽃 모양새)으로 농경지역(farming area), 주거지역(residential area), 제사지역(spiritual area)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한국 씨족마을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상류층이 거주하던 기와집은 사랑채 중심의 남자 공간과 안채 중심의 여성 공간이 뚜렷이 분할되어 있고 중앙에 앞마당(courtyard)을 놓아 제사 및 굿, 화전놀이 등 전통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평민이 거주했던 초가집들은 분지의 특

보여주는 한옥의 화룡점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Zoom meeting과 facebook live로 동시 진행된 이번 포럼은 다양한 참가자들을 고려해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보스톤 지역뿐만 아니라 LA, 시카고 지역을 포함, 45여명의 시청자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강의가 끝난 후엔 활발한 질문과 답변으로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한옥’ 강좌는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에서 계획한 Korean Heritage Symposium의 ‘한식(Korean food)’, ‘한옥(Korean Architecture)’, ‘한복(Korean Dresses)’ 중 두번째 행사였다. 다음 뉴잉글랜드 포럼은 내년 봄으로 (날짜 미정) Genosco 대표인 고종성 박사(사대 75)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정리=이경애(문리 73) 편집위원

### 권용찬 교수는

- \*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
- \* 컬럼비아대 건축 디자인 석사
- \* 하버드대 디자인대학원 비지팅 펠로우
- \* 현재 보스톤 엘쿠스 만프레디 근무
- \*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공저자



안동 하회마을은 천하의 명당이다. 산이 강을 품고 강이 마을을 보듬는다. 마을이 들어앉는 모양이 배가 나아가는 모습이라고도 하고, 연꽃이 핀 것 같다고도 한다. 부용대 위에 드론을 띄워 하회마을을 내려다봤다.

# 돌아온 '열혈 그녀' ... "즐거운 동창회 만들 것"

이성숙 (가정대 74)  
필라델피아 지부 회장

## 손재옥 미주회장 때 재무국장 매주 1시간 달려가 편집회의

'열혈 그녀'가 돌아왔다. 2014년 여성 동문으로는 처음으로 미주동창회 회장이 된 손재옥 동창회장 집행부에서 재무국장을 맡았던 이성숙 동문(가정대 74)이 지난 7월 새로운 필라델피아 지부 회장에 취임했다.

이성숙 회장은 지난 2014년 손재옥 회장 때 시작해 보스턴 윤상래 회장, 뉴욕 신응남 회장을 거치는 동안 미주동창회보를 인쇄해 배송한 필라델피아 인쇄소와 우체국을 개설한 주인공이다. 이성숙 회장은 "별크 메일 퍼밋을 내기 위해 우체국을 뺏길 나게 다니면서 미국의 우체국 시스템에 대해 많은 것을 공부하기도 했다"며 힘들었지만 즐거웠다고 당사를 회상했다.

이성숙 회장은 또 "매주 한시간 남짓 운



전해 동창회보 편집회의에 참석했는데 여러 편집위원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 그 먼거리가 마치 옆집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제가 갖고 있는 동창회에 대한 좋았던 추억을 이제 다른 동

문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동창회는 1977년에 출범해 올해로 44기에 이르며 200여명의 동문 회원 중 70학번 이후 동문이 45명에 이르고 미주동창회에 대한 회비 납부 실적이 30%

로 다른 지부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성숙 회장은 "회장으로서 나의 임무는 젊은 동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필요한 리소스를 찾아 연결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90학번 이후 동문들에게는 멘토링 기회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성숙 회장은 '열혈 그녀' 일 뿐만 아니라 미주동창회에 '장한 어머니상'이 있다면 그상을 받아 마땅한 동문이다. 동문인 남편 홍종한(자연대 75) 물리학 교수가 어린 아이들 넷을 남겨두고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큰딸은 사회학 박사, 둘째딸은 소아신경과 의사, 셋째딸은 컴퓨터 엔지니어, 막내 아들은 CPA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번듯하게 키워냈다.

아이들을 다 키운 후에는 필라델피아 명문사립 리하이대학에서 MBA와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다.

이성숙 회장은 "10월22일 가을 골프 대회를 열고 12월4일에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교양강좌와 음악회를 결집한 연말 파티를 열 예정"이라며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 '교육도시' 유학생 출신들로 출범... 매년 봄 가을엔 음악회



정홍택  
(상대 61)

## 필라델피아 지부 소개

필라델피아는 북쪽에 뉴욕, 남으로 수도 워싱턴에 끼어서 보잘 것 없는 작은 도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필라의 어디를 가던 크고 작은 대학의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무려 59개의 대학들이 산재해 있는 교육도시이다.

1960년대 한국 유학생들이 여럿 필라에 유학 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1970년에 들어서자 미 전국에서 병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어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의대생 간호생들에게 이민 문호가 크게 열렸다. 한국 유학생들도

많은 수가 졸업 후 귀국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 학생들의 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들이었다 한다.

지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탄생했다. 지부 설립자이며 제 1대 동창회장 임덕상 박사(문리대 46)는 당시 U-Penn 문리대 수학과 과장이었다. 한국인으로 미국 Ivy League의 학과장이 된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 그는 필라델피아 한인회장도 겸하고 있었고, 서재필 박사를 추모해 '서재필기념비' 건립 위원장직에 추대되어 필라 외곽 서재필 유택 동네(Media시) 공원 중앙에 'Philip Jaisohn Memorial Monument'를 건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77년 어느 날 임덕상 교수는 필라에서 친지 다섯 분을 한국식당 '한인회관'에 초대해 불고기와 맥주를 대접하며 망향의 한을 풀고 있었다. 의도적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모인 분들이 모두 서울대 출신들이었다고 한다. '얼마나 어렵게 들 어간 서울대학인데, 우리 동창회를 만듭시다' 하는 의견이 나왔고 즉석 만장일



필라델피아 지부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을 지낸 임덕상 박사.

치 가결이 되었다. 그 시간부터 대화는 모두 동창회 설립 문제 하나로 초점이 맞추어져,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창립총회는 대성공이었다. 36명의 동창이 참석했고 부부를 합하면 거의 60명에 도달했다.

일단 출범한 동창회는 순풍에 돛단듯이 성장해 나갔다. 8대 회장 한병길(상대 54)은 동창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동창회보>의 필요성을 절감해 손으로 필기해 앞뒀던 한 장에 카피한 <서울대학교 동창회보>를 만들었다. 회보는 2호부터는 <필라춘추>로 이름을 바꾸고 뉴스레터 형식의 계간으로 발전했다.

한병길 회장은 또 동창 김경원 주UN 대사(후에 주미대사가 됨)에게 필라에 내려와서 강연해 달라고 부탁해, 승락을 받았다. 강연 제목은 <남북한의 현 상황과 전망>. 1984년 6월 15일 한인복지회관에 많은 동창들과 교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동창회보 발간과 UN대사 강연회는 당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앞서 말했듯이 필라는 교육도시로서 많은 유학생들이 찾아 왔다. 그 중 음악도들은 커티스(Curtis)와 더불어 템플(Temple)대학교 음악대학을 찾았는데 오히려 템플에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했다. 템플은 학생수가 40,000명이 넘는 메가 대학이지만 한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 대학에는 세계 성악계의 거성 조영호 박사(음대 64)가 성악대학 과장으로 서,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서울대 출신 음악인들이 주동이 되어 지부 초창기부터 높은 수준의 음악회를 매년 봄 가을에 정기적으로 열어 오고 있다.



김인종 위원이 만난 **자랑스런 동문**

보스턴 의대 오세경 교수(약대 61)

# 올해로 65만 달러... 1백만 달러 기부 위해 달린다

생화학자, 보스턴 의대 교수, 심근경색 약 개발자, 서울대 약대 교수, 저자, 그리고 교회 봉사자에서 피아노 연주자로서의 그녀의 삶은 노력과 도전, 그리고 삶에 대한 사랑과 정열로 가득차 있다.

오세경 박사 - 약대 61학번, 그녀에게 걸린 수많은 타이틀과 함께 그녀가 마지막까지 추구하고 있는 삶의 정신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이다. 이 사회로부터 혜택받은 자로서, 지식과 소유를 나누고 전수하는 실천의 삶이다.

2005년 모교에 21만3천달러 기부를 시작으로 해마다 계속된 오세경 박사의 모교 기부는 올해로 65만달러를 넘어 섰다. 모교 1백만달러 기부 완성을 위해 달리고 있는 그녀에게 기부는 실천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 소녀시절의 꿈 - 헌신

소녀 시절부터 그녀의 꿈은, 의사가 되어 남에게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과학자가 되어 일생을 암연구에 바치려는 것이었다. 그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중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약대까지 우등을 놓치지 않았다.

결국 대학 졸업 즈음에 미국의 대학원 여러 곳에서 장학금

을 받고 입학허가를 받게 됐고, 코넬대 영양대학원을 선택해 1966년 8월 도미했다. 그녀는 자신의 멘토이면서 노벨상 생리학상을 받은 제자 James P. Allison 박사를 배출해 낸 Ralph A. Reisfeld 박사가 동양인 여자인 자신을 연수생으로 받아 비행기표까지 보내 주셨다고 회고했다.

코넬대에서 석사, 조지아 대학에서 생화학 박사를 받고 남가주 라호야(La Jolla)에 있는 Scripps Clinic and Research Foundation, 볼티모어 소재 국립의료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하버드대학 등에서 면역학 연수를 받은 후 1979년부터 보스턴 의대 미생물 학과 조교수, 부교수로 재직했다.

"서울대학 시절에 합춘원 장학금과 5.16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면 저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제 인생의 판도도 달랐을 거예요." 그녀가 소녀 시절의 꿈을 이룬 이후 모교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기부를 시작한 이유이다.

### 심근경색약 개발과 하버드 대학 남편

보스턴 의대 부교수 재직 후 1992년 Ciba-Corning(후에 Bayer Corp.에 합병)에 입사해 이곳에서 c-Troponin-I라는 심근경색 진단 시약을 의학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시약은 심근경색의 진단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시약으로 1998년부터 시판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보급돼 쓰이고 있다. 이 시약의 개발로 정확한 심근경색 진단이 가능해지면서 미국인이 지난 50년 동안에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을 73%나 감소시키는데

일조했다.

오세경 박사의 남편은 하버드대학 치대 학장으로 50년간 재직하던 제럴드 슈클라 석좌교수였다. 오박사는 남편을 "하버드대학이 지니고 있던 인간보물"이라고 말한다.

"수천명의 치과의사와 치대학장(UCLA 박노희 학장 포함)을 양성하고 문학, 미술, 역사에 능통하며, 유화, 수채화를 그렸고, 플루트 연주자로서 몬트리올 교향악단과 협연했으며 심포니도 작곡했죠."

오세경 박사는 말년에 피아노를 다시 배워 남편이 별세하기 2주일 전까지 남편과 함께 피아노 2중주를 연주하곤 했다. 이들 부부 학자의 아름다운 사랑과 삶은 2003년 출간된 그녀의 영문자서전 'An American Odyssey'에 잘 담겨 있다.

### 은혜를 갚는 '자랑스러운 약대인'

"한국이 아무리 잘 산다해도 학비를 대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2005년 약대 19회 동문들이 졸업 40주년을 기념해 모교에 오세경 장학금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치과대학에는 남편을 기리기 위해 Shklar Award를 설립해 음악, 미술에 특출한 재능을 보인 치과대학생, 의료봉사를 가장 많이 한 학생들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보스턴의 유서깊은 Park Street Church에도 많은 지원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모교 서울대 약대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남편의 별세이후 남편 소장의 방대한 의학 역사책을 기반으로 한 의학 역사 강의를 진행하며 후학들에게 새로운 의학의 시각을 전수했다.

2019년 6월에는 서울대에서 '자랑스런 약대인상'을 수상했고, 9월에는 오세경 총장으로부터 '서울대 발전 공로상'을 받았다.

### 서울대 후배들에게

"학문에 정진하는 길이 외롭고 험난해도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면 언

오세경 교수는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헌신과 봉사의 삶으로 '자랑스런 약대인상', '서울대 발전공로상'을 수상했다.



2015년, 남편의 별세 이후 남편의 장서 약 2만권 중에서 희귀도서 약 3천권과 음악과 미술책 약 1천권, 도합 약 4천권의 장서를 서울대 중앙 도서관에 기증했다. 이 기증으로 서울대 중앙 도서관은 동양에서 보기 어려운 서양의 고서들을 보유하게 됐고 도서관 측은 이 고서들의 목록 안내서를 출판했다.



오세경 교수가 보스턴의 유서깊은 Park Street Church 200주년을 기념해 13명의 영어연수생과 함께 2주에 걸쳐 제작한 퀼트. 이 교회의 역사 기념물로 전시돼 있다.

젠가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을 때 하늘이 내린 축복임을 깨닫고 그 축복을 남과 공유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프랑스 작가, 사상가 Marcel Proust의 'Work, when there is light, be merciful when you have mercy'를 실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김인종 america@snu.ac.kr



# 딸 학교 이삿짐 날라주러 갔다가 “정들었다”



박준창  
(인문 79)

많은 곳 다 놔두고 왜 하필 텍사스주 아마릴로? 딸이 이번 가을 학기에 대학원에 진학했다. West Texas A & M University에서 언어 치료 과목을 공부하는데 이 과정이 있는 대학원은 본 캠퍼스가 위치한 Canyon이란 곳이 아니고 아마릴로 다운타운에 소재해 있다. 딸 이삿짐을 날라 주기 위해 지난 8월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갈 때는 자동차로, 올 때는 비행기로.



## 박 변, 텍사스주 아마릴로를 가다

### 1. 여정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동차로 출발, 아마릴로까지 2박 3일. 거리로는 1100 마일.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Flagstaff)에서는 Travellodge에서 첫째날 1박. 뉴멕시코주 투쿰카리(Tucumcari)에서는 Motel Safari라는 곳에서 둘째날 1박.

### 2. 아마릴로라는 시 이름

먼저 아마릴로 뜻을 아는 사람? Amarillo로 쓰는데 스페인어가 원어로 색깔 “노랑” 이라는 뜻. 스페인어 발음은 “아마리요” 또는 “아마릴료” (중미 발음으로는 “아마리조”가 되겠지만)인데, 미국인들은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애머릴로”라고 한다.

영어식 발음으로는 당연히 그렇지. 피렌체를 플로렌스로, 비인을 비엔나로 아예 단어를 바꿔 부르기도 하는데, 안 바꿔 불러 주는 것만으로도 다행. 어쨌든, 아마릴로가 도시 이름인데 그럼 왜 다른 지명도 많고 다른 색깔도 많은데 하필 아마릴로?

아마릴로는 1850년대 노래 The Yellow Rose of Texas에서 나왔다고 한다. 여기서 노란 장미는 흑백 혼혈 여자를 뜻하는데, 당시 멕시코 영토였던 텍사스가 독립을 위해 멕시코와 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때 이 혼혈 여자(Emily Morgan 혹은 Emily D. West라고 함)가 멕시코 군 적장을 교란시키는데 성공하고, 텍사스 민병대는 결국 멕시코 군에게 승리하게 된다.

그런데, 막상 이 노래 자체는 헤어진 혼혈 여인을 그리워 하는 사랑의 노래로, 이런 역사적 내용은 없다. 엘비스 프레슬리와 윌리 넬슨도 불렀지만, 요즘 시각에서 보면 이 노래는 다분히 인종 차별적이다. (“yellow girl”, “darkies”).

텍사스 사람들이 이 노래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때가 텍사스 군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이다. 알라모 요새는 함락당했고 잘 훈련된 정규 멕시코 군에게 텍사스 민병대는 적수가 안될 것 같았는데 한 여인의 도움으로(그것도 작전에 의해서가 아닌,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한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 독립을 하게 되니 말이다.

### 3. 아마릴로시는 어떤 곳?

텍사스는 광대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광대한데, 너무나 광대해서, 텍사스 서쪽 끝 El Paso에서 동쪽 아칸소주와의 경계에 있는 도시 Texakarna까지 자동차로 가는 거리가 캘리포니아 Los Angeles에서 El Paso까지, 2개 주를 지나야 하는 거리보다 더 멀다. (El Paso-Texakarna 814 마일, Los Angeles-El Paso 803 마일)

또한 남북간 거리로도 상당한데, 제일 남북으로 길다고 생각되는 캘리포니아와 비교해 보자. 캘리포니아주 거의 북쪽 끝에 위치한 Crescenta City라는 곳에서 남쪽 끝 Chula Vista까지 자동차로 855 마일이다. 그런데 텍사스주 서북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Dalhart라는 곳에서 남쪽 끝 Harlingen이라는 곳 까지가 828 마일이라고 하니 과연 텍사스는 넓은 곳이다.

이러한 광대한 텍사스주 서북쪽이 사각형으로 생겨, “텍사스 팬핸들 (주방 용기 팬 손잡이)”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있는데, 아마릴로는 이 지역 한 복판에 있다. 아마릴로는 이 지역 최대 도시로 인구는 30만 정도. 헬륨 개스, 수직 이착륙 및 단거리 이착륙 군사용 헬기, 육류 포장, 그리고 미국내 유일의 핵무기 조립으로 유명하단다.

### 4. 교통은?

돌아다니는 차량의 거의 대부분이 SUV 들이다. 고급 승용차는 찾

아 보기 힘들었다. 넓은 땅, 짐 싣고, 편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SUV가 제격. 그리고 아마릴로시 자동차 운행 속도가 대개 45 마일이다. 길이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처럼 넓지 않은데도 45 마일 아니면 50 마일이다. 사람없는 넓은 땅을 휘젓고 다닌 탓에 길은 좁아도 마음껏 달리고 싶은 가보다.

### 5. 기름 값? 너무 싸다

텍사스나 캘리포니아나 다같이 석유를 생산하는 곳인데 왜 텍사스는 이렇게 싸고 캘리포니아는 비싸야 하는 것인가? Regular gasoline이 갤런 당 \$2.70. 현재 아무리 싸도 \$4.00 이상인데. 단, 여기 옥탄가는 86, 88. 캘리포니아는 87, 89.



### 6. 사람들은? 친절했다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찾은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다들 친절했다. 여행 기간 중 사람들과의 interaction 없어서 지극히 피상적인 관찰이지만 인종적 편견도 별로 느끼지는 못했다. 백인이 54%, 라티노가 30% 정도된다. 미국 남부, 동남부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소위 Bible Belt의 일부라서 교회가 엄청 많다. 그것도 다 보수적인 침례교, 장로교 교회들. 과장해서 말하면 한 블락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

여담으로, 난 텍사스 하면 자꾸 한국의 TK 대구 경복을 떠올린다. 보수의 총 본산에, 더운 날씨에, 지역에 대한 자부심에, 특유의 심한 억양까지 많이 닮았기에.



### 7. 그럼 이곳 음식은?

텍사스주의 일부이니 역시 텍사스 바베큐가 가장 대표적인 음식일 듯. 더구나 세계 3대 소고기가 텍사스, 아르헨티나, 일본 와규라고 하니.

며칠을 버르다 마침내 Rudy's Country Store and Bar-B-Q라는 곳에 가서 이 음식을 맛 보았다. Country Store라 그런지 식당에서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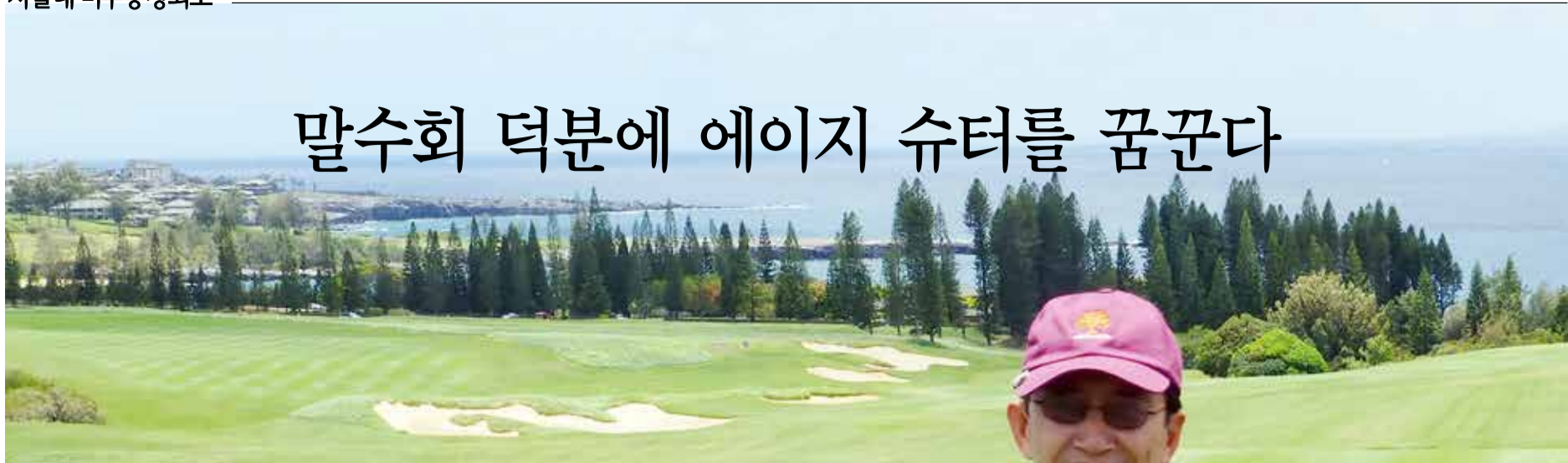
영하는 주유소가 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여행자들이 기름도 넣고, 식사도 하고, 필요한 물품도 샀는지. 카운터 가기 전 주류, 음료수, 콜슬로, 콩 샐러드 등은 냉장고에서 직접 꺼내고,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돈을 지불하면 즉석에서 바구니에 주문한 음식을 담아 준다.

카운터 뒤에서 바로 고기를 굽고 있다.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제일 비싼 것 brisket moist 를 시켰는데도 그렇게까지 맛이 있다는 느낌은 못 받았다. 이 집 소스가 유명하다는데 두 가지 다 내 입맛에는 좀 달았다. 대신 Shine이라는 인구 2000명에 불과한 소도시에서 만드는 맥주 Shine Bock이라는게 있는데 별로 맥주를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맛있었다. (사진 속 노란 레이블의 맥주)

### 8. 또 가고 싶은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체류 시간이 너무 짧았던 탓에 본 것이 별로 없어서다. 도시가 그리 크지 않고(우리가 다닌 곳 웬만하면 다 3마일에서 7마일 정도, 국제공항마저도 13마일, 17분 거리), 주거 비용이 싸고, 기름값 싸고, 사람들이 친절해서 그런지 정이 간다. 차로 가기에는 좀 멀지만, 여유가 있다면 주변 콜로라도와 오클라호마까지 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가기를 고대한다. 아마릴로, 기다려! 다음 번에는 다 훑어주마.

# 말수회 덕분에 에이지 슈터를 꿈꾼다



**김정빈 UCLA 석좌교수**  
(공대 66)

**남가주 골프 동호인 모임  
매달 마지막 수요일 라운딩  
친목 다지며 인생도 배워**

나는 비교적 골프를 일찍 시작했다. 아주 어려서는 아니지만 20대 중반 유학생할 말년에, 학위 필수 교과 과정은 모두 끝냈고 논문 쓰는 과정만 남아 있어서 변화없이 반복되는 무료한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승마와 골프 클래스를 택했다. 이 선택이 앞으로의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였다.

당시 내가 다니던 대학 안에 좋은 골프장이 있었는데, 재학생에게는 \$2만 내면 골프를 칠 수 있는 특혜가 있었다. 아무리 1970년대였지만 \$2은 정말 썩다. 당시 연습 공 한 바가지도 \$2정도 했던 거로 기억한다.

졸업 후 승마는 말을 소유할 능력이 없었으니 취미 생활로 유지할 수 없었으나, 골프는 바쁜 일상 중에도 짬짬이 틈을 내어 계속해 왔다. 돌이켜 보면 쉬지 않고 달려온 유학/이민 생활에서 골프가 내 인생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졸업 후에도 직장 생활을 학교에서 연구, 강의, 학생 지도로 보냈는데, 이 학교 생활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다. 남보다 앞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해야 살아 남는 직업이라, 밖에서 들어오

던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내던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 이 스트레스를 골프장에서 해결했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나는 연구실에서 머리를 쥐어 짜기 보다는 골프장 필드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나의 쉽지 않았던 직장생활을 큰 탈없이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된 게 골프였다.

바쁘게 직장생활에 쫓기다 보니 서울대 동창회 활동에 거의 참여를 못하였는데, 은퇴 후 우연한 기회에 말수회 현 회장 한호동 선배님을 만나게 되어서 말수회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이 모임은 매수회라하여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골프 치는 회원들과,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만 참가하는 말수회 회원들이 있다. 오래전부터 문리대 선배님들이 시작해서 운영하시다가 얼마전부터 공대로 넘어와 지금의 한호동 회장님이 주관하신다.

서울대 동창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남가주 서울대 골프 동호인 모임이다. 자주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전 현 미주 서울대 총 동창회장, 전 현 남가주 서울대 동창 회장, 전 현 남가주 단과대학 동창회장 등등, 명실공히 남가주 서울대를 대표하는 동호인 모임이라고 볼 수 있다.

말수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선배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특히 평소엔 건강에 꽤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왔던 나의 목표는 건강이 유지되어 80까지는 골프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랬었는데, 말수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목표를 조금 높였다.

현재 80을 넘기신 선배님들이 다수이고, 80을 넘겨서 골프를 시작한 선배님도 계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통하는



모임이다. 위로 선배님들을 잘 모시고, 동년배들끼리 나누는 정이 두텁고, 후배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말수회에 즐겨 참석한다. 나도 선배님들 따라다니다 보면 80 중반까지는 골프를 계속할 수 있겠고(아직 10년 쯤 남았다), 그러다 보면 후시 그 어렵다는 에이지 골퍼가 될 수도 있겠다는 꿈도 생겼다.

내 나이에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남은 여생을 풍요롭게 한다. 순전히 말수회 덕분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을 알려면 밥을 같이 먹어 보거나 (술까지 몇 잔 해보면 더 좋고) 여행을 같이 다녀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사람을 알려면 같이 골프를 쳐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장담한다. 같이 골프를 치다 보면 동반자의 성격이 그대로 보인다. 성격이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나만이 중심인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성적이 목을 매는 사람, 성적 보다는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 평소에는 안 보이던 모습이 다 드러난다.

어렵거나 예상치 않았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보면 동반자의 인생철학이 보인다. 화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허허 웃어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 분에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물론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그대로 다 상대방에게 보여질 것이다. 골프를 몇 번 같이

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는 더욱 친근해진다(한국에서처럼 골프 후 발가 벗고 같이 목욕까지 하고 나면 말 그대로 더 가릴 것도 없어진다).

간혹 가다 별로 어울리고 쉽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된다. 이런 저런 경험을 하면서 나를 어떤 골퍼로 또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수업은 물론 내 몫이다. 인생이 내 맘대로 안되듯이 골프도 내 맘대로 되는 적이 별로 없다. 이제 뭔가 좀 터득 했나 보면 그게 아니라는 상황이 곧 벌어지는 게 골프와 인생의 공통점인 것 같다. 고회를 지나 회수를 바라보는 내 나이에 골프를 통해서, 골프 동반자를 통해서 아직도 인생 수업을 하고 있다.

말수회는 구성 회원 성격상 남가주 동창회를 대표하는 동호인 모임이다.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의 산 역사가 담겨 있고, 인생 선배들의 경험과 삶의 지혜가 모여 있다. 바라는 선배님들이 계속 건강하셔서 후배들에게 계속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시고, 젊은 후배들도 많이 참석하여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여 남가주 서울대를 대표하는 동호인 모임으로서 미주 서울대 총동창회 활동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첨언하자면, 현 말수회 회원 중에는 준 프로급의 골퍼도 있다. 말수회에 참가하면 인생 수업 뿐 아니라, 골프도 한 수 배울 수 있다.

말수회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Arcadia에 위치한 Santa Anita Golf Course에서 열린다.



김정빈 교수(앞줄 왼쪽)가 말수회 회원들과 골프를 친뒤 식당에서 뒷풀이를 하고 있다.

# 온라인 홈커밍데이... 내년엔 캠퍼스에서 만나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대 동창회 홈커밍데이 행사가 온라인 행사로 진행됐다. 매해 10월15일 개교기념일에 맞춰 열린 서울대 홈커밍데이 행사는 올해로 제42회로 미주 동문들도 많이 참석해 나날이 발전하는 모교를 돌아보고 한국 동문들과의 결속과 화합을 다져왔다. 아쉬운 마음을 담아 유튜브 채널로 진행된 서울대 홈커밍데이 행사를 돌아본다.

## 동문들 영상 편지 등으로 참여 노명호 미주회장도 축하 영상 1800여명 2억2000만원 협찬

서울대 동문 가족의 최대 축제인 총동창회 홈커밍데이. '내년엔 꼭 버들골에서 만나자' 던 약속을 지키진 못했지만 따뜻한 만남은 어김없이 이뤄졌다. 총동창회는 10월 15일 온라인으로 제42회 홈커밍데이 겸 동문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 사상 첫 온라인 홈커밍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올해는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버들골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발전기금과 공동 주관으로 온라인 개최를 결정했다.

2년 연속 불발된 만남이 아쉬울 법도 한데 많은 동문들이 협찬금과 협찬품을 보내며 응원을 보내왔다. 이준용(경제 56 대립 산업 명예회장) 총동창회 고문이 300만원, 류지영(ALP 20기 전 국회의원) 동문이 2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동문 1800여명이 지원한 협찬금과 협찬품은 총 2억2000만원 상당. 이희범 본회 회장이 300만원 상당의 65인치 TV 1대, 오세정(물리71) 모교 총장이 도자기컵 세트 100개를 지원했으며 미주동창회도 아이패드를 보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대총동창회 유튜브



10월 15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42차 홈커밍데이 겸 동문 화합 한마당 영상 캡처. 관악캠퍼스의 명소를 담아내며 동문들의 아쉬움을 달렸다. 단풍이 물든 관악 캠퍼스 가을 모습.

채널에서 시작된 행사는 약 40분간 사전 제작한 영상을 방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명호(토목61) 미주동창회장이 LA에서 보내온 영상편지를 비롯해 각 동창회장을 포함한 각계 동문들이 보내온 축하 메시지로 문을 열었다.

대운동장과 관정도서관 앞, 자하연, 미술관 등 관악캠퍼스의 명소를 배경으로 모교 아카펠라 동아리 인스트루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매해 홈커밍데이를 열었던 버들골 풍산마당 등 모교 곳곳의 전경을 시원하게 담아내 캠퍼스를 찾지 못하는 동문들의 아쉬움을 달렸다.

이희범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에는 꼭 버들골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학창 시절을 회고하고, 서울대인으로서 자긍심

을 갖길 희망했는데 또 한 번 비대면 행사를 하게 됐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선물과 금품도 아낌없이 협찬하면서 따뜻한 격려를 해주셨다"며 감사를 전했다. 그는 이어 "동창회 활동이 당초 생각한 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 당초 계획했던 조찬모임이나 등산모임이 취소된 적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동창회 활동을 소개했다. "오늘이 시간 많이 웃고 즐거워하며 학창시절로 돌아가 행복한 기쁨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정 총장은 동문들과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하며 모교 소식을 전했다. "서울대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모든 방역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면 수업 재개를 계획하고 있고, SNU 홀딩스를 설립하여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재원 확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 "고등교육의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동문 여러분께서 조연자이자 응원자로, 또 참여자로서 힘을 더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하 공연으로 테너 조두석(성악 12)·황준호(성악 17), 바리톤 이수홍(성악 12)·김태한(성악 19) 동문 및 재학생으로 구성된 음대 중창단과 소프라노 정혜린(성악 16) 동문이 '그리운 금강산',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을 열창했다. 동문들은 실시간 댓글을 통해 "신선한 공연과 음악으로 아침부터 기분 좋아지네요", "한 컷 한 컷 노고가 느껴집니다" 등의 감상을 보내왔다.

발전기금이 준비한 기부 스토리 영상과 본회 장학생들의 감사 메시지를 본 후엔 "의미있는 말들도 후배들이 잘 하네요. 예뻐요", "관악, 미래가 밝네요"라는 말로 화답했다. 한 동문은 "온라인이라서 홈커밍데이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가 없어 지더라도 온·오프라인 같이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다.

실시간으로 200여 명이 시청한 이날 홈커밍데이 영상은 유튜브 서울대총동창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서울대 정문. 국립 서울 대학교의 머릿글자인 'S'의 형상을 본따 디자인한 것.



관악 캠퍼스 전경. 기부를 통해 건립된 건물이 관악 캠퍼스에만 68개에 달한다.





1970'S

## 그때는 '의미' 지금은 '재미'

### 국가 사회보다 개인 중점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교 축제가 열린 지난 9월 24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 모교 가을축제의 주제는 '네모난꿈'이었다. 이는 동글게 살아야 한다는 기성세대의 가르침을 비판하는 한편, 젊은 학생들이 가슴속 깊이 간직한 저마다의 꿈을 마음껏 펼쳐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네모와 동그라미 등 도형에 착안한 단체게임이 행정관 앞 잔디마당에서 개최됐다. 커다란 천 위에 동그란 공을 올린 채 반환점을 돌아오는 1라운드 '동그라미의 여정', 정사면체의 각면을 뒤집으며 특수미션을 수행하는 2라운드 '세모의 역습', 네모난 통에 더 많은 공을 골인시키는 3라운드 '네모의 꿈' 등으로 구성됐다.

같은 장소에서 꿈을 주제로 한 미니게임이 축제 기간 내내 펼쳐졌다. 물총으로 공을 맞춰 골을 넣는 'Target for Dream' 과 포켓볼 형식을 차용한 'Shoot for Dream', 바닥이 없는 네모난 통에 공을 던져 그 안에 빈 그릇을 채우는 'Throw for Dream' 등이다.

아이디어 공모에서 당선된 공모전 수상 부스도 눈에 띄었다. 서울대 응원단의 'SNU CHEERS'는 무료로 타투 스티커를 붙여줬으며 방탈출 동아리 '트랩드'는 야외 방탈출 게임을,

디자인싱킹 학회 'OGI'는 타로체험과 무알콜 칵테일 시음을 준비했다. 2018년부터 대학 축제에서 술을 팔면 처벌받게 돼 과거 단대 중심으로 운영되던 주점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 쌍쌍파티 한쪽에선 축제 거부

대학신문에 따르면 모교 축제가 지금처럼 재미 위주의 문화를 형성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다. 공동체 의식과 저항 정신의 열기가 열어지고 축제가 교문 앞 시위 행렬로 이어지던 일도 1992년 이후 종적을 감췄다.

틀이 정해져 있던 집체적 연극의 비중이 줄고 장르와 주제를 불문한 다채로운 공연이 열리기 시작했다.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해 관악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도 종종 열렸다. 1994년 가을 열린 '녹두문화제'에선 아예 녹두거리에서 축제를 열어 주민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벽화를 그렸다. 이러한 형태의 축제가 몇 차례 계속되자 관악구청의 금전적·행정적 지원을 받았고 많은 주민들이 함께해 서울대 부근 신림9동을 '대학동'으로 개칭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1980년대까지의 축제는 정치적·사회적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57년 제1회 '서울대문화제'가 대학생 사상통일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 '학도호국단'에 의해 열렸으며 4·19혁

명을 거치면서 학도호국단이 해체돼 열리지 않다가 1975년 캠퍼스 종합화가 이뤄지면서 부활했다.

학도호국단이 주최한 '대학축전'은 표면적으로 대동(大同)의 장이었지만, 캠퍼스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축제 때 '쌍쌍파티'를 즐기면서도 한편에선 축제 거부 시위가 벌어졌다.

이후 학내 민주화 운동의 열기 속에서 운동권 총학생회가 주최한 축제는 학생 운동의 일부로 여겨졌다.

학도호국단의 강압을 피해 건물 안으로 숨어들기도 했고, 민중가요 동아리 '메아리'의 공연처럼 사회비판적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학생들은 사회참여 정신과 저항정신을 내세우며 대동제를 열었고 축제가 시위로 이어지기도 했다. 학도호국단은 1985년 폐지됐고, 독립적 축제 운영기구인 '축제하는 사람들'이 2003년 설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병서(기계항공16입) 축제하는 사람들 대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내년부턴 축제 기간 단축이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화려하진 않지만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모교 축제 고유의 정체성이 동문들의 후원으로 오랫동안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동창회보 나경태 기자



1980'S



1990'S

1. 1979년 청춘남녀가 쌍쌍파티를 즐기는 모습.
2. 1975년 마이티 카드게임을 하는 남학생들.
3. 1975년 잔디밭에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는 남학생과 여학생.
4. 1975년 열린 '맥주마시기' 대회.
5. 1987년 열린 진군제에서 주점 플래카드를 거는 학생들.
6. 1987년 땀진뉴스로 비판 받던 KBS 9시 뉴스를 풍자하는 연극.
7. 1995년 대동제에서 단체울동을 선보이는 학생들.
8. 2019년 자국의 전통음식을 선보이는 국제대학원 학생들.
9. 2019년 가을축제 폐막제에서 초대가수의 공연을 관람하는 학생들.
10. 2019년 게임에 참가해 고무공을 던지는 학생들.



2019

10

9

8

# 세상에 갑자기 죽음이 없어진다면?



김지영  
(사대 69)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반도가 대륙에서 짱하고 떨어져 나간다. 섬이 된 반도는 하루에 10킬로씩 서서히 남쪽으로 흘러간다. 마치 큰

돌로 만든 뗏목처럼. 왜? 설명이 구구하다. 가장 그럴 듯한 이유는 대륙의 큰 나라 간섭과 동쪽 섬나라의 시비가 지긋지긋해서 아예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소설을 써보고 싶다. 그런데 벌써 이런 기괴한 상상을 먼저 한 사람이 있다. 1984년에 출간된 호세 사라마고(José Saramago)의 <돌 뗏목 (The Stone Raft)>, 그 소설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가 유럽 대륙에서 분리되어 대서양 한 가운데 섬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사라마고는 1998년 노벨상을 탄 포르투갈의 작가다. 그의 이름은 포르투갈 발음으로는 “주제 사라마구”라고 읽는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영어식 발음으로 호세 사라마고로 쓴다. 그는 2010년 87세로 죽었다. 55살에 첫 소설을 발표한 늦깎이 작가. 물론 소설을 쓰기 이전에 신문기자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동차 수리공으로 인생을 시작했다.

사라마고의 소설은 황당하지만 신선한 이야기를 통해 현실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신랄하게 풍자한다. 1998년 스웨덴 한림원은 그에게 노벨상을 수여하면서 사라마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그는 항상 상상과, 동정심, 역설로 가득 찬 우화와 비유로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의 소설을 살펴보면 그에 대한 이런 평가가 이해가 간다. <눈먼 자들의 도시 (Blindness)>에서는 전염력이 강한 병이 돌아 도시 전체가 감염이 된다. 그 병은 눈이 멀는 병이다. 눈이 멀어서 캄캄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얗게 되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병. 눈이 먼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사회,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눈먼 자들이 다시 시력을 회복했을 때, 그들이 눈먼 상태에서 한 짓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눈뜬 자들의 도시 (Seeing)>에서는 세상이 너무 잘 보이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룬다. 어느 나라에서 선거를 한다. 대부분의 유권자가 백지 투표를 한다. 눈뜬 자들은 이미 선거나 투표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 안다. 그리고 아는 대로 행동을 한다. 기존의 정치 질서가 무너진다. 사라마고는 소위 투표에 의한 민의가 허구라는 점을 발가벗겨 버린다.

세상에 갑자기 죽음이 없어진다면? 사라마고는 <죽음의 중지 (Death with Interruptions)>에서 이 문제를 푼 던져서 삶과 죽음의 이분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어느 도시에서 어느 날 밤 0시를 기준으로 죽음이 중지된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환호한다. 그러나 죽음이 없는 세상은 삶도 없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밀수하게 된다.

사라마고 소설의 신선함과 신랄함은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는 삶과 사회의 전제 조건을 뒤집어 놓는 상상력에서 나온다. “상상력(想像力)”이란 보지 못한 것을 그려내는 힘이다. “상상”이란 단어의 두 번째 글자는 “사람+코끼리”의 뜻이다. 중국의 중심부에서는 코끼리가 살지 않는

## 유럽문학 거장 호세 사라마고 작품 세계

다. 남쪽 변방에 사는 코끼리를 보지 않고 그럴듯하게 묘사하는 것이 상상이다.

실제로 이베리아 반도가 유럽에서 떨어져서 표류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사라마고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던져 놓고 그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그린다. 이베리아 반도는 유럽 대륙에 붙어있어야 한다는 절대 명제가 뒤집힌 세상 이야기를 함으로써,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현실 문제를 부각시킨다.

위에서 소개한 다른 소설의 전개도 마찬가지이다. 죽음을 정지할 수는 없다. 세상 사람들이 한꺼번에 눈이 멀 수는 없다. 작가의 상상력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what if)” 라는 엉뚱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사라마고의 상상력은 때로는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으로 시작하기도 한다. 그의 대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 (The Gospels According to Jesus Christ)>는 “신은 전지전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은 유대교의 신 그리고 기독교의 신이다. 그리고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마리아는 처녀 수태를 했는가?” 그리고 “예수는 신의 아들인가?” 라는 문제를 풀어 나간다.

## 노벨상 수상 포르투갈 작가 황당하지만 신선한 이야기 통렬하게 현실 비판 풍자

필자의 소견으로는 사라마고 소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작품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 첫 머리에 요셉과 마리아가 섹스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동정녀 마리아”의 전설은 일찌감치 깨어진다. 여기 까지만 읽어도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게는 신성모독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거지 차림의 기인이 마리아에게 나타난다.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기인은 이야기의 주요 대목에 마리아 그리고 예수에게 현신하여 수수께끼 같은 미래 이야기를 해준다. 그 거지는 신의 사자, 아니면 악마? 마리아가 헛갈린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서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동거를 하는 것으로 나온다. 둘 사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연인, 부부 사이로 그려진다. 사라마고는 인간의 육체의 모든 부분을 신이 만들었다면 어느 특정 부위만 골라서 신이 저주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끝에 가서 예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는다.

예수는 죽는 순간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 하고 신에게 매달리지 않는다. 예수의 죽음은 신의 뜻이었지만 자신의 선택이기도 하다. 예수는 신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로 죽기로 한다.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고 제가 가롯 유다에게 밀고를 하도록 한다.

예수가 사람의 아들임을 강조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신의 뜻에 대한 최소한의 반항이다. 예수는 신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보편화라는 거창한 명제의 도구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 아버지 조셉이 그를 살리기 위해 다른 베들레헴 아기들을 구하지 못한 원죄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택한 것이다.

마지막은 역시 신의 승리. 예수가 숨을 거두기 직전 하늘이 열리고 신이 내려다 보면 말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장하도다” 예수는 깨닫는다. 그가 선택했다고 생각한 이 죽음조차 신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마지막은 마지막까지 마지막이 아니다. 또 하나의 반전. 예수는 자신을 내려다보며 빙긋이 웃음 짓는 신의 모습을 보고 예수가 죽은 후 신과 예수의 영광을 위해 흐르게 될 피의 강물을 생각한다.

그리고 예수는 하늘에 대고 큰 소리로 외친다.

“인간들아, 저분을 용서하라. 저분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 (Men, forgive Him, for He knows not what He has done.)” He와 Him은 대문자.

사라마고는 왜 이런 이야기에 “복음”이란 제목을 붙였을까? “복음”이란 말은 영어 “Gospel”이란 말을 번역한 것이다. “Gospel”은 요즈음 나오는 성경에는 “good news”라고 풀어서 말해준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다. 사라마고의 이 소설에서 무엇이 그렇게 좋은 소식일까?

신이 마련해 놓은 인간 역사의 원대한 계획에 대한 인간 예수의 소극적인 그러나 인간적인 반항이 아닐까? 제한적이지만 인간의 자유 의지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사라마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사라마고의 발칙한 문제제기와 설명에 천주교와 기독교는 강하게 반발한다. 당시 살라자르 독재 정권하의 포르투갈은 사라마고에게 문학상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사라마고는 포르투갈을 떠나 스페인령의 작은 섬으로 이주해서 살게 된다. 그리고 교황청은 그가 노벨상 후보에 오르자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위대한 인간 예수의 찌질한 인간 후예들의 웅졸한 반응.

떠난 자  
머무는 사람  
굽이굽이  
흐르네



당나귀  
젓 바퀴 도나  
가다 보면  
또 거기



힘으로  
평화를 연다.  
패는 놈의  
논리지.



엘에이 근교 로널드 리건 기념관에 세워놓은 베를린 장벽의 일부.

# 건강 지키는 좋은 습관들 '실천해야 보약이죠'



**김자성**  
(미주동창회 홍보국장 ·의대 79)

누구나 원하는 것은 행복한 삶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이 기본이다.

100세 시대라는데 삶이 길어질수록 여기 저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노년기로 갈수록 삶의 질은 건강상태에 많이 좌우되는 것을 본다. 평생 열심히 살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시간도 많아졌는데,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 병 관리에 삶이 매이게 되고 평생 수고한 보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몸관리는 차량관리와 같아서 젊은 몸은 새 차처럼 이리 저리 굴러도 별 탈 없이 굴러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유지관리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건강의 요소를 거시적으로 보면 몸 건강, 정서적 건강, 지적 건강,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 환경적 건강 등 모든 차원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건강은 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성격을, 성격이 인격을, 인격이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건강유지에 있어 기본적인 공식은 <좋은 습관>을 길러 나가는 것이다. 습관은 바꾸기 힘들지만, 좋은 행동을 조금씩 새로 도입하고, 유해한 행동을 조금씩 없애 나가다 보면 어느새 좋은 습관이 생겨나는 것이다.

### 일, 성취, 돈벌이 과도한 몰입도 중독

여기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독>과 <고착>이 있는 경우이다. 물론 술, 담배 또는 약물 중독 등 그 자체가 문제인 중독도 있지만, 일 중독, 게임 중독, 성취 중독, 돈벌이 중독 등, 중독의 뒤편에 빠지기 쉬운 것이 삶이다. 삶의 기운이 어디 찌크라도 고착됨이 없이 순조롭게 흐르는 것이 건강한 상태라 본다면 어느 특정한 가치에 에너지가 많이 쏠려 있는 현상이 고착이고 중독이다.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들을 살펴보자.

첫째는 운동이다. 평균 하루 한 시간 정도, 일주일에 7시간 정도는 뭔가 신체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건강습관이다. 요즘 더 짧은 시간에도 비슷한 운동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활동적인 삶에 대한 메시지는 같다. 더욱이 유산소 운동이면 더 좋다. 운동은 그 자체로 즐거움의 근원이 되지만, 땀나고 맥박이 올라가는 유산소 운



동은 몸의 신진대사를 왕성케 하여 기초체 온을 올리고 면역기능을 강화시킨다.

유산소 운동은 또 두뇌에 좋은 자극이 되어 신경전달 물질의 활동을 원활하게 유지 하기에 우울증의 치료에는 물론, 우울증의 예방적인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 치매 두려워말고 느긋하게 살아야

치매에 대해서는 치매 자체 보다도 치매에 대한 예기공포로 더 괴로워하는 분들을 임상에서 많이 본다. 두려워하면서 모든 활동이 위축되는데, 치매가 올 테면 오라지하는 느긋한 마음으로 뭔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삶이 훨씬 현명하다. 그리고 보면 운동은 거의 만병 통치 약 같은 위치를 차지한다. 다만 이런 활동적인 생활습관은 오랜 세월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기에 어린 시절부터 활동적인 삶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담배를 끊는 것이 전반적으로 건강을 한 단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달리 설명할 필요도 없다.

세째는 비만/음식 문제이다. 전반적으로 동물성 지방을 줄이고 가공된 음식을 줄이고, 특히 중년 이후엔 전반적으로 탄수화물 섭취 비중을 줄이며 충분한 야채나 단백질로 대부분 열량을 대체하는 것이 추천된다.

### 경계성 당뇨 단계 식단 바꾸니 호전

필자는 경계성 당뇨 단계에 이른 지라 얼마 전부터 식단을 바꿨는데, 아침은 냉동 모듬 야채와 두부 1/3 모를 썰 약한 간장 소스에 곁들여 먹고, 점심은 샐러드에 모듬 견과, 삶은 달걀, 치즈 등 단백질을 가미한 식단으로 밥/빵이 없는 식단으로 바꿨는데, 하루 종일 좋은 느낌을 유지한다. 혹 약간의 허기를 느끼는 오후 시간이면 모듬 야채 칩 스낵을 먹는데 아주 맛이 좋다. 혼자 통제가 가능한 아침 점심을 건전한 건강 식단으로 유지하면 저녁은 상황에 따라 입맛에 당기는 대로 메뉴를 선택하니 먹는 즐거움

도 더 늘어났다. 회식 등이 주로 저녁인 것을 감안하면 입맛대로 먹는 자유도 확보하는 셈이다. 그래도 탄수화물 섭취는 자제한다. 체중 문제로 다이어트에 늘 신경을 쓰는 분들에게는 이런 탄수화물 줄이기 식단을 시도해 보면 그리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섯째는 음주이다. 적당한 음주는 삶의 기쁨이지만 두뇌 건강 측면에서는 소량의 알코올도 부정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최소한 심혈관 건강에는 적당한 음주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더 최근의 보고들은 심장 건강에도 부정맥 등의 위험을 높여 부정적이라는 보고가 더 많아지고 있다.

여섯째는 이미 진단된 만성질환의 관리이다. 이미 여기에 이르면 주치의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지침에 잘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 정해진 대로 위,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하고, 일년에 한 번은 종합적으로 피 검사 등을 해 몸 속에 이상을 미리미

리 발견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다만 이런 건강 생활을 100% 따라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저기 몸에 문제가 생기게 마련인 것이 인생이라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겸허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유익한 자세이다. 너무 건강에 집착, 또는 좋은 음식/보약을 찾아 헤매는 것은 기본적으로 깊은 불안을 반영한다고 보이는데, 모든 것을 적절히 하는 것이 옳은 태도이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건강은, 먼저 언급했듯이 신체건강 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 영적인 건강, 대인관계, 환경과의 관계 등에 연결된 유기적인 현상이니, 그 저변에는 전반적 의식의 확대, 발전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가장 좋은 생활 습관은 명상 수행이라는 점이다. 명상의 건강에 대한 효과는 여러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으니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 온라인 명상·책 읽기 좋은 때죠

### 매주 수요일 저녁 줌 미팅

10월부터 새 책으로 시작합니다. 심리/정신건강/영성발달에 연관된 책을 읽고 명상수련을 하는 모임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50분(PST)에 20분 명상, 김자성 정신과 전문의가 이십여 분 각 장 요약 소개, 그 후 자유 토론을 9시30분까지 합니다.

새로 시작할 책은 <Lifecycles> by Christopher Bache, (역서: 윤희의 본질, 김우종 역). 저자는 카톨릭 배경의 종교학/철학 박사이고, 내용은 최근 많이 축

적되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연구에서 나온 사례들을 검토하고, 또 전통 종교의 비의 종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윤회 신앙을 리뷰하며, 기독교 신학에 윤회의 개념을 통합시키려는 시도인데 기독교와 동양종교와의 만남이라 할 수 있겠음. 기존 멤버들은 다양한 종교적 배경에서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는 분들입니다.

dr.jasungkim@gmail.com (전화 213-797-5953)로 이메일 주시면 매주 수요일 단체 줌 링크 보내 드리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권영덕**  
(공대 전기공학과 54)

**나의 인생노트**

**“씨니와 함께 쓴 순해보는 내 삶의 축복”**

1963년 9월 15일, 수송선 ‘미첼호’를 타기 위해 아침 일찍 인천부두에 도착했다. 이날 나는 미군 함정을 타고 미국유학의 장도에 올랐다.

부두는 미군병사들로 북적였다. 수송선은 귀국 병사들을 싣는 배였는데 자리가 있으면 유학생들도 태워줬다. 이 배를 얻어 타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른다.

꿈에 그리던 유학의 길이었는데도 마음은 그리 편치 않았다. 이제나 저제나 ‘씨니(Sunny)’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얼마 후 승선 게이트가 닫히면 씨니와는 영영 못 만날 것 같아 심장이 방망이질을 쳤다.

그때 배웅 나온 어머니와 여동생 사이에 씨니의 모습이 비쳤다. 씨니는 혼자 아니었다. 놀랍게도 ‘사모님’과 함께였다. 얼마나 반갑던지 녀죽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고맙습니다. (예비) 장모님.”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다.

거의 6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날을 생생히 기억한다. 우리 부부에게 이날은 ‘애니버서리’나 다름없어 평생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씨니는 아내 단혜선의 애칭이다. 내가 이름 끝자 ‘선’을 ‘씨니’라고 지어줬다. 언제 부턴가 나도 ‘덕키(Duckie)’로 불렸다. 혜선 ‘씨니’와 덕영 ‘덕키’는 이렇게 오매불망 잊지 못할 사이가 된 것이다. 미국식으로 이름을 지은 것만 봐도 우리는 미국서 살 팔자였던 모양이다.

**공대 다닐 때 가정교사 했던 아이 누나**

씨니는 내가 공대 재학시절 가정교사를 했던 아이의 누나다. 그때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는데 대학생인 나를 무척 따르고 좋아했다. 우리 그렇게 만났다. 사랑엔 국경도 없다는데 고작 나이 8년차가 무슨 대수람.

우리 사이가 들통 난 건 그 집 먼 친척 아저씨의 ‘밀고’ 때문이었다. 늘 살갑게 대해줬던 ‘사모님’이 돌변했다. 장충동 부잣집 딸과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아들은 어딜 보나 이뤘질 수 없는 조합이었다.

장충동 출입이 금지된 나는 씨니가 보고 싶을 땐 광화문 버스 정류장에서 저녁내내 기다렸다. 수업이 끝나 교문을 나서는 여고생들 사이에서 씨니를 발견하면 그리 좋을 수가 없었다.

버스안에서 잠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고작이었다. ‘버스 데이트’는 그러나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씨니가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해왔다. “덕키 선생님을 좋

아하지만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1960년대 초 한국사회는 덕키와 씨니의 결합에 결코 너그럽지 않았다.

씨니는 내게 헤어지자고는 했지만 여운을 남겼다. “유학가시게 되면 한 번 연락주세요.” 이 말에 나는 유학수속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내가 ‘미첼호’를 타기 한 달여 전, 장충동 사모님의 심정에 갑자기 변화가 왔다. 이전 어엿한 여대생이 된 씨니를 짝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자살소동을 벌인 것이다. 이에 놀란 사모님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한다. 자살소동을 벌인 남자와 내 사진을 보여주고는 누가 사윗감으로 좋겠느냐고 물었던 것.



**장충동 부잣집 딸과 가난한 과부 아들  
미국 유학 덕분에 인연 다시 이어져**

점괘가 사모님을 흔들여냈다. “덕키한테 시집을 가면 매일 업어줄 것이고, 소동을 벌인 남자가 남편이 되면 평생 친정에 가서 돈 가져오라고 뉘탈할 것이요.”

나는 지금도 자살소동을 벌인 그 남자가 고맙다. 그가 약을 먹지 않았다면 장모님의 마음이 변할 리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 점쟁이. 정말 용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나와 씨니는 끊어질 뻔했던 인연이 다시 이어졌다. 나는 사모님이 정말 나를 싫어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내 능력과 됴됨이는 맘에 들었지만 집안이 초라하고 게다가 흠여머리를 모셔야 하는 소위 ‘시집 살이’ 때문에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돌이켜 보면 나의 미국생활은 역마살이 겠다기 보다는 운명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미국과의 인연은 6·25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나는 먹고 살기 위

해 미군부대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야간경비원으로. 쥐꼬리 만한 봉급이었으나 그래도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제 44 건설 공병대대. 내게 첫 직장이 미국이었다.

군대를 가셔도 역시 미국과 만났다. ‘뺨’이 없었는데도 미 군사고문단에 배치돼 서울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미국과 운명적으로 만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그렇다고 내 유학이 순탄한 건 결코 아니었다. 가장 큰 장벽은 재정보증인을 구하는 일이었다. 그때만 해도 재정보증인이 미국 영사 앞에서 예금통장을 보여주며 선서를 해야 했다. 사실 빚보증이나 다름없어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금’을 만들어 기부했다.

**아내가 남긴 재산, 장학금으로 기부**

서울대에도 기부를 했다. 얼마를 했는지는 잊어먹었고 설사 알고 있다고 해도 밝히고 싶지 않다. 무슨 대단한 공을 세운 것도 아닌데. ‘서울대 명예의 전당(SNU Honor Club)’에 내 이름을 올려준 것만해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대학발전기금으로 고액을 기부한 동문들이 대상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3년 전쯤 두 아들의 권유로 회고록 ‘아름다운 추억들’을 펴냈다. 쓰다보니 1,000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 됐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온갖 역경을 극복하며 우리 남매를 키워주신 어머니 구성순, 그리고 내게 참사랑의 기쁨을 알게 해 준 아내 단혜선이 이 책의 주인공이다.

요즘은 회고록을 영어로 옮기는데 힘을 쏟고 있다. 영어권인 두 아들과 손주들을 위해서다. 처음엔 한 페이지 번역에도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가속도가 붙어서인지 슬슬 넘어간다.

일제 강점기와 제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등 격동의 시기에 아빠와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역사의 파노라마를 후손들에게 펼쳐보이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

1주일에 한 번은 골프를 치며 노후를 보낸다. 공대 후배인 정황 박사가 라이드를 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는 40여년 전 장만한 집에 그대로 살고 있다. 주변에선 다운사이징해 단층집이나 라구나 우즈 같은 은퇴촌으로 이사하라고 하지만 글썄, 그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 씨니의 체취가 아직 곳곳에 배어있는 것 같아서다.

**약력**

- 1958년 공대 전기공학과
- 1966년 뉴멕시코 주립대학공학박사
- 1966~1967년 모토롤라반도체 선임연구원
- 1968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고문
- 1969~2011년 캘스테이트 풀러튼 교수(캘리포니아주)

※ 이 글은 권영덕 동문의 회고록 ‘아름다운 추억들’과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 자택에서의 인터뷰를 1인칭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회백  
(의대 55)

## 1972년 알래스카는 내 꿈의 고향

“사람이 적어서... 서로 도왔고 존중했다”

학회에 갈때 마다 내 명찰에 적힌 AK를 보는 사람마다 “음, 아칸소에서 오셨구만 “하는 인사를 하곤 한다. Arkansas의 약칭은 AR 인데 AK를 아칸소로 착각하는 이유는 다들 주 약자를 잘 모르는 데다가 이런 모임에 알래스카에서 온 사람이 나타나리라고는 짐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아칸소가 아니라 알래스카에서 왔다고 하면 눈이 뜨그래지면서 “알래스카?” 하고 반문하고 잠시 있다 이어 나오는 질문은 으레 “왜 알래스카에?” 다. “하필 그런데에...” 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묻는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 궁금증을 풀어줄 새도 없이 헤어졌는데 이제 그 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한다.

1972년 뉴욕에서 레지던트를 거의 끝마칠 때 먼 친척집 딸 아이 백일 잔치에 초대되어 가게 된일이 있다. 이 집은 한국여자와 결혼한 미국 군인 집이다. 이 군인은 정보부 계통에 속해 해외(한국도 포함)에서 근무하고 국내에서도 근무해서 미국 전역에 안가본곳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근무하던 여러 고장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나는 레지던트 마친 후 어디에 정착할까 생각하던 참이라 이 군인에게 “당신이 제대후 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냐?” 하고 물었다.

그는 “알래스카” 하고 주저없이 말했고 깜짝 놀란 나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알래스카? 아니 왜 하필 알래스카” 하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사람이 적어서!”

사람이 적어서라? 사람이 적은 곳이라는 말은 그곳이 사람살기 나쁘다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닌가? 살기 좋은 곳이라면 왜 사람들이 그리로 가지 않지? 도대체 나에게

씨는 먹혀들어가지 않는 소리였다. 한참 그의 말을 되새겨 생각해보다가 “사람이 적어서 좋다니 무엇이 좋소?” 하고 다시 질문했다.

그러자 그는 인심이 좋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나서 있으면 다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차를 세우고 어떻게든 고쳐 주려고 애쓴다는 것이다. 그 제서야 그의 말에 일리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내가 찾는 곳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든 흔하면 가치가 없고 드물면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인간도 마찬가지로 드물 때 값이 나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사람이 적은 알래스카로 가기로 결정했다. 온 식구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회 잡지 구인란을 뒤져 알래스카 페어뱅크스로 이사했다. 그때 이사할 때엔 흑백 TV를 포함한 모

든 집을 내 한 차에 실어 맨해튼에 있는 철도역에 가서 붙였다.

내가 알래스카에 도착한 1972년 알래스카의 인구는 32만 5천명 이었고 페어뱅크스 인구는 2만 미만이였다. 알래스카 면적은 남한의 17배이고 인구는 남한의 154분의 1이니 인구밀도가 남한의 2600분의 1밖에 안됐다. 문자 그대로 인간의 희소 가치가 높은 곳으로 간 셈이다.

우리집에서 병원까지 약 5 마일인데 하루는 병원까지 가는 동안 내 차 말고는 다른 차가 하나도 없는 날이 있었다. 그런데 2년 후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공사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따라서 인간의 희소 가치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희소 가치를 찾아간 내 꿈은 2년만에 무너지기 시작했고 자연을 즐기려는 인간 대신 자연을 파헤쳐 노다지를 캐려는 인간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알래스카 파이프 라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1970년대 초 페어뱅크스의 모습이 담긴 우편엽서.

인간의 희소 가치가 줄어드는데 따라 다른 동식물, 광물질들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이를 얻고자 하는 인간간의 갈등은 나날히 심해지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물 분쟁이다. 지난 몇년 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 나일강이 아프리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나일강 발원지가 있는 에티오피아가 수력발전을 목적으로 강 상류에 대규모 댐을 건설하고 있는데, 하류에 있는 이집트가 식수 부족 등을 이유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집트도 1950년대 자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수단과 전쟁 직전까지 가면서 아스완댐 건설을 밀어붙였는데 이제 자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인간의 희소 가치를 되찾고 물질보다 인간이 위에 서는 그런 날을 다시 볼 수 있을까? 1972년의 알래스카는 나의 꿈의 고향이었다.

###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usa30@gmail.com



이내원  
(사대 58)

서울대 개교를 기념하며

# 정조의 ‘이순신 사랑’ 서울대로 이어져

## 규장각은 학술연구 기관 총무공 역사기록 집대성

10월은 개교기념일(15일)이 있는 달로서 서울대 관악 캠퍼스가 품고 있는 규장각(奎章閣)의 유래와 그 의미를 돌이켜 살펴 보는 것도 뜻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학 시기나 자연계 등 전공 학과에 따라서는 가까이 할 기회가 거의 또는 전혀 없었을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규장각은 1776년 조선의 22대 정조 임금 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잃는 흑독한 참화 끝에 왕위에 오른 후 회심의 정치 개혁을 실현하고자 설립한 왕실 도서관 겸 학술연구기관이었습니다. 세종에게 집현전이 있었다면 정조에게는 규장각이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런만큼 정조는 자료의 수집과 정리 보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능한 학자들을 모집하여 마음에 두었던 여러 과제들을 나누어 맡겨 집중연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종이후 조선 제2의 문예 부흥을 이룩하여 ‘학문의 대왕 정조임금’이라는 후세의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 국가 운영 중심 역할한 규장각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장각의 위치를 조선 궁궐 중 풍광이 가장 수려하고 은밀하여 비원이라고도 이르던 창덕궁 연못 후원 언덕의 주합루(宙舍樓)로 한데서 정조 임금의 각오와 열성을 읽을만 합니다.

관장 업무는 규장이라는 의미가 말해 주듯 시문 조서 서한 어진 등 임금의 기록물들을 보존 관리하고 자료의 수집과 새로운 학술 연구결과와 인쇄 보급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세도정치에 시달린 정조 임금은 왕권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규장각에 국책연구 기능을 추가하여 규장각이 사실상 국가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한데서 정조 규장각의 위상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규장각의 불멸의 성과는 정조 임금이 조선의 역사기록을 조사하던 중, 200년 전에 사나운 20만 왜군의 침입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총무공 이순신의 눈부신 연전연승기록을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총무공 이순신 열혈 마니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4년간의 총무공 이순신 현장사업에 착수합니다.

첫번째로, 정조 17년 1792년 8월, 국력을 총

동원하여 전국 각지의 구석 구석에 널리 있던 모든 이순신 기록을 수집하여 이순신 백과사전이라고 할수있는 <이충무공전서>를 편찬하도록 규장각 문신 윤행임과 검서관 유득공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두번째, 1793년 7월에는 추증 좌의정에 머물러 있던 이순신의 관직을 최고위직인 영의정으로 올려 극진한 존경심을 표시하셨습니다.

세번째, 1794년 10월 4일에는 아산 어라산 이순신 묘소 입구에 총무공의 공적을 높이 기리는 어제신도비를, ‘임금이 손아래 신하의 공적을 기리는 신도비문을 짓고 세우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반대하는 신하들에게 정조대왕께서는 ‘우리 장하신 선조대왕이 나라를 일으킨 공로의 기초가 된 것은 오직 총무공 한사람의 큰 힘에 의한 것이다. 이제 내가 총무공에게 특별히 비명(비석에 새기는 글)을 짓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비명

을 쓰다 하랴’ 라고 자기의 반석같은 이순신 숭모의 정을 꺾지 않았습니다.

### 내탕금으로 총무공전서 출간

사진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조 대왕의 어제신도비는 특별히 비각을 지어 비바람에 헐어지지않도록 세심하게 마음 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조 20년 1795년 돌아가시기 바로 5년 전에 드디어 규장각에 하명했던 이충무공전서를 출간했는데 출간 비용의 절반을 정조대왕의 개인 생활비인 내탕금으로 보태어 총무공에 대한 극진한 도리를 다했습니다.

이충무공전서의 편제는 3부로 나뉘어 있는데 제1부는 7년간의 전쟁일기이고, 제2부는 조정에 전쟁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나 물자를 요청하는 공식 공문서철인 장초, 그리고 3부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보낸 개인 편



창덕궁 연못 후원 언덕의 주합루에 들어선 정조시대의 규장각



정조가 비각을 지어 그 안에 안치한 어제신도비.



2006년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 신축한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지 모음인 서간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편집 과정에서 규장각 각인들이 편상 지어낸 말이 오늘에는 일반명으로 널리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난중일기(亂中日記)>입니다.

이순신의 일기 표지에는 임진일기, 일기 갑오 등 간지로 표시되어 있어 어디에도 ‘난중일기’라는 기록은 없었으나 편찬 과정에서 7년 일기를 간지로 일일이 부르기가 너무나 번잡스러워 전쟁일기만을 하나로 뭉뚱그려 ‘난중일기’라고 부르기 시작 한데서 유래한 신조어인 셈입니다.

### “재갈량 보다 두배나 위대해”

이와같이 4년에 걸친 이순신 현장사업에 마감한 정조대왕은 총무공 이순신을 일러 ‘당나라 사적을 안정시킨 이정과 한나라 왕실을 회복시킨 제갈량을 합한 분이 총무공이다’라는 극적인 표현으로 최고의 인물 평을 헌사하셨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 세상에서 가장 빼어난 인물로 인식되었던 제갈량 보다 두배나 더 위대하다고 단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1800년, 재위 24년 만에 48세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투철한 역사인식의 바탕 위에서 학문의 발전과 문예부흥으로 국권의 강화를 꿈꾸던 정조대왕의 성취는 일제 강점기 수난의 시대에도 총독부 경성제대를 거쳐 큰 손실 없이 30여만권의 귀중한 조선의 기록유산이 고스란히 국립 서울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006년 사진 3과같이 관악 캠퍼스에 현대적 독립 건물을 신축하여 이름마저 새로운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서울대가 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일성록, 정조 규장각 진본 이충무공전서 등 헤아릴수 없는 귀중한 자료와 정조대왕의 못 이룬 꿈을 이어 나갈 한국의 적통 상아탑임을 공인하는 부동의 물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서울대인들은 서울대 규장각에 서린 조선의 마지막 성군 정조대왕의 당부를 마음에 새겨 남 보다 한발 앞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모범시민의 본으로 답할 차례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10월 25일은 마침 총무공께서 필사즉생을 외치시며 13대 133척의 절대 열세를 압승으로 마감하시며 나라를 구해내신 명량대첩 434주년 기념일로 서울대 개교 기념의 달과 함께 10월 동기의 인연을 뜻하는 듯합니다.

〈디아스포라 아리랑〉 미술전시회 리뷰

# 정체성 확립과 한국적 아름다움 표현



장소현  
미술 평론가  
(미대 65)

지난 8~9월 남가주서 열려  
참여 작가 22명 중 동문 8명  
아리랑 정서를 작품에 녹여

자아 정체성 확립과 한국적 아름다움을 담은 개성적 작품을 통해 다인종 다문화 사회인 미국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오랜 준비와 공부를 거쳐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오늘날 한국문화가 대중음악, 영화,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정체성의 확립과 우리만의 고유한 미의식이기 때문이다.

〈디아스포라 아리랑〉 전시회는 남가주의 한인작가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엘에이 한인사회의 대표적 화랑인 “사토갤러리”와 주류사회의 “LA아트코어” 두 곳에서 연달아 열려,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22명의 작가 중 서울대 동문 작가는 현해명(61), 김구자(61), 홍선애(62), 박다애(74), 이명규(73), 박혜숙(74), 박영구(84), 이상훈(02) 등 8명으로 각자 개성적인 작품을 통해 전시회의 흐름을 주도했다. 그 밖에도 기획 장소현(미대 65), 축하공연 유희자(음대 68), 전시회를 초대한 사토갤러리의 고석자 관장(문리대 72) 등 동문들의 역할이 컸다. 이번 전시작품의 정신적 바탕은 이민자인 한인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이고, 표현의 구체적

인 방법은 우리의 대표적 민요인 ‘아리랑’을 바탕으로 삼은 한국적 정서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것이었다.

한국적 아름다움과 개성적 예술세계라는 공감대를 통해 미국문화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치밀하게 배려한 효과적 작품 배치를 통해 전시회 전체를, 하나의 큰 이야기 줄거리를 연출해 낸 박다애, 오지영 큐레이터의 예술적 감각이 돋보였다.

박다애 동문은 “디아스포라의 핵심은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같은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개성과 정체성은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2세들에게는 확고한 정체성 확립을 통한 자신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전시회가 그런 근본적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이 전시회에는 70대 후반의 원로작가부터 20대 초반의 신세대 작가, 이민 1세와 1.5세,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작가, 입양인 작가 등 다양한 세대들이 참여하여, 폭넓은 시각과 각자의 개성적 예술 세계를 펼친 점도 높게 평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중언어로 세대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1.5세 작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이들은 한인사회와 미 주류사회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도 가능한 중요한 자산이다.

“앞으로 세대 간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져야 할 것입니다. 언어도 문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 작가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기성세대 작가들의 너그러운 아량이겠지요. 그런 점에서도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들이 함께 하는 전시회 같은 행사가 많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은 우리의 대표적 민요인 ‘아리랑’을 바탕으로 삼은 한국적 정서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것이었다.

한국적 아름다움과 개성적 예술세계라는 공감대를 통해 미국문화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치밀하게 배려한 효과적 작품 배치를 통해 전시회 전체를, 하나의 큰 이야기 줄거리를 연출해 낸 박다애, 오지영 큐레이터의 예술적 감각이 돋보였다.

박다애 동문은 “디아스포라의 핵심은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같은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개성과 정체성은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2세들에게는 확고한 정체성 확립을 통한 자신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전시회가 그런 근본적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이 전시회에는 70대 후반의 원로작가부터 20대 초반의 신세대 작가, 이민 1세와 1.5세,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작가, 입양인 작가 등 다양한 세대들이 참여하여, 폭넓은 시각과 각자의 개성적 예술 세계를 펼친 점도 높게 평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중언어로 세대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1.5세 작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이들은 한인사회와 미 주류사회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도 가능한 중요한 자산이다.

“앞으로 세대 간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져야 할 것입니다. 언어도 문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 작가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기성세대 작가들의 너그러운 아량이겠지요. 그런 점에서도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들이 함께 하는 전시회 같은 행사가 많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전시회가 표현의 바탕으로 삼은 것은 한국의 대표적 민요인 아리랑의 정서였다. 한국문화의 소중한 유전자인



김치 이미지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고있는 박영구 화가. 미주 동문회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아리랑의 기본정신은 해원상생 즉 모두 함께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다. 그리고 아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 태어나고, 새롭게 해석되며 살아 숨쉰다.

“이와 같은 한국 특유 정서를 어떻게 소화하여 작품에 표현할 것인가가 우리 작가들에게 주어진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아울러 한국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계속 공부해야할 근본이지요. 특히 여기서 태어난 2세들에게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 점에서도 이번 전시회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참여 작가, 특히 젊은 작가들의 말이 절실하게 들린다.

〈디아스포라 아리랑〉 전시회는 많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근본적 숙제들을 다시 바라보게 해준 의미 있는 전시회였다. 물론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다. 그런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주류 미국미술계에 진출하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알찬 전시회가 자주 열리기를 바란다는 미술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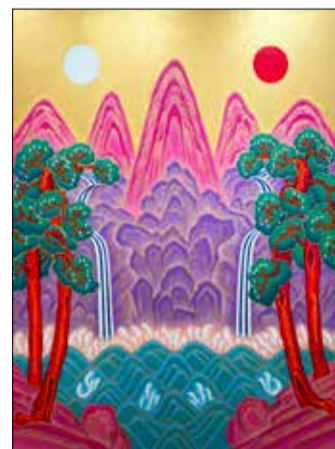
김구자 작품



박다애 작품



박혜숙 작품



이상훈 작품



홍선애 작품



이명규 작품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  
총 모금액  
TOTAL

제15대/제16대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금액을 발표하겠습니다

##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154명)

(D) 다이아몬드 이사  
고광선 (공대 57)

(P) 플래티넘 이사  
주중광 (약대 60)  
허지영 (문리 66)

(G) 골드 이사  
김일영 (의대 65)  
박창규 (약대 59)  
성낙호 (치대 63)  
정상진 (상대 55)  
박영철 (농대 64)  
윤상래 (수의 62)  
정선주 (간호 68)  
최홍균 (공대 69)  
김정희 (음대 56)  
양남주 (명예 이사)  
이용락 (공대 48)  
오인석 (법대 58)

(S) 실버 이사  
김경숙 (사대 64)  
김태형 (의대 57)  
이흥표 (의대 58)  
정재훈 (공대 64)  
한귀희 (미대 68)  
강영빈 (문리 58)

김재훈 (공대 72)

남가주

고서영석 (의대 55)  
고오재인 (치대 33)  
고윤낙승 (의대 60)  
강신용 (사대 73)  
곽웅길 (문리 59)  
권기홍 (의대 60)  
김경숙 (간호 68)  
김기형 (상대 75)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 63)  
김상찬 (문리 65)  
김성호 (법대 64)  
김재영 (농대 62)  
노명호 (공대 61)  
노재성 (법대 58)  
류재풍 (법대 60)  
박명근 (상대 63)  
박원준 (공대 53)  
박윤수 (문리 48)  
박종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심화섭 (약대 61)  
오홍조 (치대 56)  
윤정욱 (약대 50)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승훈 (상대 74)  
이종도 (공대 66)  
이청광 (상대 61)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58)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 72)  
정철룡 (의대 55)  
정태 (의대 57)  
제영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조임현 (간호 72)  
조한원 (의대 57)  
차민영 (의대 76)  
차종환 (사대 54)  
하기환 (공대 66)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홍성선 (약대 72)

뉴욕

교한창섭 (문리 57)  
강충무 (사대 61)  
고애자 (음대 57)  
김광호 (문리 62)  
김승호 (공대 71)  
김종률 (사대 51)

김한중 (의대 56)  
김해암 (의대 52)  
석창호 (의대 66)  
신응남 (농대 70)  
윤중숙 (약대 66)  
이기영 (농대 70)  
이대영 (문리 64)  
이재덕 (법대 60)  
이재량 (상대 61)  
이전구 (농대 60)  
이준행 (공대 47)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 67)  
추재욱 (의대 57)  
한태진 (의대 58)  
허선형 (의대 58)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고종성 (사대 75)  
김문소 (수의 61)  
김용구 (공대 66)  
박경민 (의대 53)  
오세경 (약대 61)  
윤선홍 (치대 64)  
이의인 (공대 68)  
전신의 (문리 57)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 71)  
홍지복 (간호 70)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김태환 (의대 58)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 81)  
조형준 (문리 62)  
황호숙 (사대 65)

미시간

정태 (의대 57)

북가주

민병곤 (공대 65)  
손석보 (공대 68)  
윤정욱 (약대 50)  
전혜경 (문리 67)

샌디에고

임천빈 (문리 61)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아이오와

김시근 (공대 72)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오하이오

김용현 (경원 66)

워싱턴 DC

공순옥 (간호 66)  
박평일 (농대 69)  
이윤주 (상대 63)  
최지원 (의대 61)  
강연식 (사대 57)  
권기현 (사대 53)  
민흥기 (문리 61)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워싱턴주

이명자 (간호 74)  
이희백 (의대 55)

조지아

김용건 (문리 48)

텍사스

박태우 (공대 64)  
이광연 (공대 60)  
조시호 (문리 59)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 55)  
김영우 (공대 55)  
김현영 (수의 58)

서중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 77)  
신성식 (공대 56)  
신의석 (공대 53)  
이만택 (의대 52)  
주기욱 (수의 68)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 69)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종신 이사 구분]

- (D)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 (P)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 (G) 골드 이사 \$10,000 이상
- (S) 실버 이사 \$5,000 이상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213)908-5586

www.snuaa.org  
news@snuaa.org



# 박종수 동문 미주동창회에 1만달러 기부

## 동창회 지부 활성화 당부 모교·동문모임 지원 앞장

박종수 동문(수의대 58, 미주동창회 고문)이 미주동창회에 1만달러를 기부했다.

박종수 동문은 미주동창회에 새로이 노명호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동창회 지부 활성화와 동문들간의 유대강화에 새로운 계기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노회장의 노고를 지원하기 위해 1만달러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박종수 동문은 1967년 미국 유학을 와 미시간대학 동물병원에서 15년간 연구직으로 종사하며 대학원을 졸업했고 버지니아주 아베레트대학에서 학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미시간과 LA를 오가며 부동산 및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동창회, 모교 그리고 교회와 커뮤니티 지원에 헌신하는 수의대 박종수 박사 부부.

박종수 동문은 모교에 시흥 토지 8천여평을 기부했다. 서울대 수의대는 박종수 동문의 모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장학금 기부 등 한화로 약 8억5천여만

해 수의대 생명공학 연구동 1층을 박종수 홀로 명명한바 있다.

박종수 동문은 LA 코리아타운의 대형 한인교회인 새누리교회의 장로직을 수행하며 이 교회의 건축위원장으로 교회 신축을 지휘하며 LA의 명물 건축물을 세우는데 성공했고, 현재 새누리교회 본당은 한인사회의 각종 대형 이벤트 공연장소로도 제공되고 있다. 지난 7월의 남가주 총동창회 모교 발전기금 모금 자선음악회도 이 새누리교회에서 공연된 바 있다.

박종수 동문은 모교지원 뿐만 아니라 남가주 동문, 수의대 동문 모임도 수시로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 제 42대 미주동창회(회장 노명호)가 남가주에서 운영됨에 따라 미주동창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후원에 나섰다 말했다.

### 9월 후원자



참여 협력 영광

종신이사님들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 미주동창회 -

김시근  
(공대 72)  
남가주 LA

이윤주  
(상대 63)  
워싱턴 D.C.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75(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150(2021. 7 ~ 2023. 6) <input type="checkbox"/> \$3,000(종신이사회비)	<input type="checkbox"/> \$240(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480(2021. 7 ~ 2022. 6) 일반 광고 문의: snuaausa30@gmail.com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보낼 곳: SNUAA-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주소:				

#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1차 회기: 2021. 7. 1 ~ 2022. 6. 30) (2차 회기: 2022. 7. 1 ~ 2023. 6. 30)

※ 볼드는 1, 2차 회비

남가주	신영찬 (의대 63)	.....	조종수 (공대 64)	오명주 (간호 77)	한의일 (공대 62)	류성열 (공대 72)	필라델피아
강동훈 (법대 59)	안병일 (의대 63)	뉴욕 NJ/NY	진봉길 (공대 50)	임정란 (음대 76)	.....	이양춘 (공대 52)	PA/DE/S.NJ
강홍재 (상대 53)	양태준 (상대 56)	강창홍 (의대 63)	최영태 (문리 67)	정춘임 (간호 67)	오례곤 OR/ID	이원섭 (농대 77)	김경희 (가정 71)
김건진 (문리 62)	염동해 (농대 74)	권영국 (상대 60)	최정용 (사대 63)	천동우 (공대 63)	계지영 (문리 60)	전병택 (상대 65)	김상천 (농대 64)
김광은 (음대 56)	유석홍 (상대 61)	김명숙 (미대 57)	최형무 (법대 69)	최경선 (농대 65)	김상순 (상대 67)	최준한 (농대 58)	김정현 (공대 68)
김문엽 (농대 83)	유영자 (음대 63)	김명철 (공대 60)	홍정표 (음대 67)	홍병익 (공대 68)	.....	.....	김진우 (공대 62)
김상찬 (문리 65)	이강훈 (치대 65)	김병권 (문리 63)	.....	황동하 (약대 65)	오하이오	조지아	박호현 (의대 52)
김석구 (공대 66)	이경희 (간호 69)	김석자 (음대 61)	뉴잉글랜드	.....	김현왕 (공대 64)	GA/AL/MS	서종민 (공대 64)
김석홍 (법대 59)	이명선 (상대 58)	김완주 (의대 54)	MA/RI/NH/ME/VT	샌디에고	서윤석 (의대 62)	김기준 (공대 61)	성기호 (상대 59)
김수향 (간호 68)	이안순 (간호 78)	김중권 (의대 63)	김선혁 (약대 59)	이문상 (공대 62)	서의원 (공대 66)	김명숙 (농대 58)	송성규 (공대 50)
김영중 (치대 66)	이영수 (상대 60)	김태호 (상대 57)	김형범 (문리 57)	.....	송용재 (의대 63)	서광모 (공대 65)	신선자 (사대 60)
김원호 (약대 63)	이영현 (간호 70)	김현중 (공대 63)	윤상래 (수의 62)	시카고 IL/IN/WI/MI	.....	.....	안세현 (의대 62)
김재영 (농대 62)	이원택 (의대 65)	박건이 (음대 62)	윤영자 (미대 60)	김갑중 (의대 57)	워싱턴 DC	캐롤라이나	윤정나 (음대 57)
김재희 (문리 54)	이정근 (사대 60)	박경희 (음대 57)	이규진 (약대 60)	김인섭 (음대 68)	DC/MD/VA/WV	SC/NC/KY	이규호 (공대 56)
김택수 (의대 57)	이정화 (공대 52)	박상 (상대 55)	정정옥 (의대 60)	김재석 (의대 61)	고무환 (법대 57)	마동일 (의대 57)	정덕준 (상대 63)
김학철 (의대 55)	이진영 (의대 65)	박은규 (약대 72)	.....	김정주 (문리 60)	김내도 (공대 62)	.....	정홍택 (상대 61)
나승욱 (문리 59)	이창신 (법대 57)	선종철 (의대 57)	룩카마운틴스	김정화 (음대 56)	김동훈 (법대 56)	커티컷	주기목 (수의 68)
문병길 (문리 61)	이체진 (문리 55)	손갑수 (약대 59)	워싱턴 (의대 67)	김현주 (문리 61)	김용덕 (의대 53)	김기훈 (상대 56)	최현태 (문리 62)
박부강 (사대 64)	이해영 (공대 56)	송기인 (의대 60)	표한승 (치대 58)	김희주 (의대 62)	김윤호 (공대 64)	유철정 (약대 61)	한동휘 (문리 57)
박영욱 (사대 55)	이홍표 (의대 58)	신정자 (간호 62)	.....	박명기 (농대 61)	석균범 (문리 61)	.....	.....
박원준 (공대 53)	임동호 (약대 55)	양명자 (사대 63)	미네소타	박창욱 (공대 58)	유정식 (수의 60)	텍사스	하와이
박은숙 (미대 62)	장인숙 (간호 70)	임종열 (미대 81)	남세현 (공대 67)	서상현 (의대 65)	유홍열 (문리 74)	LA/DALLAS/NM	김달욱 (사대 55)
박인수 (농대 64)	정병혁 (농대 70)	오용호 (의대 66)	변우진 (문리 81)	이건정 (공대 69)	이영덕 (사대 61)	박유미 (약대 62)	이재형 (수의 61)
박종수 (수의 58)	정수만 (의대 66)	원인순 (문리 67)	성욱진 (치대 87)	이덕수 (문리 58)	이종국 (의대 52)	송요한 (문리 73)	.....
박창규 (약대 59)	정인환 (법대 54)	유재섭 (공대 65)	.....	이성길 (의대 65)	장윤희 (사대 54)	이경화 (공대 56)	하트랜드
박취서 (약대 60)	정철룡 (의대 56)	윤영섭 (의대 57)	북가주	이용락 (공대 48)	정계훈 (문리 55)	황명규 (공대 61)	IA/MO/KS/NE/
박호성 (의대 55)	정형민 (문리 71)	이영일 (의대 60)	강윤희 (간호 46)	임영신 (의대 52)	정원자 (농대 62)	.....	AR/OK
서치원 (공대 69)	주영세 (사대 59)	이영재 (상대 58)	박경용 (약대 63)	임현재 (의대 59)	정평희 (공대 71)	플로리다	정민재 (농대 70)
손기용 (의대 55)	주정래 (상대 65)	이전구 (농대 60)	박서규 (법대 54)	정승규 (공대 60)	홍영석 (공대 58)	김재석 (의대 66)	.....
신건호 (법대 53)	최용완 (공대 57)	이태인 (의대 61)	박정규 (간호 76)	최희수 (문리 67)	.....	이정필 (의대 58)	휴스턴
신동국 (수의 76)	한종철 (치대 62)	조남천 (사대 59)	손창순 (공대 69)	하계현 (공대 64)	워싱턴주	.....	최성호 (문리 58)

## 광고 후원금, 일반 후원금 (2021. 7. 1 ~ )

단위: 달러

광고 후원금	후원금	후원금	후원금	후원금	후원금	후원금	후원금			
남가주	강호석 (상 81)	240	김동훈(법 56)	200	오찬수 (약 57)	200	뉴욕	허선행 (의 58)	200	
	고석자 (인 72)	600	김영 (수 63)	500	오홍조 (치 56)	500	강창홍 (의 63)	50	.....	
	김양희 (음 77)	1200	김영희(간 54)	50	이명선 (상 58)	500	권영국 (상 60)	200	메릴랜드	
	김원탁 (공 65)	240	김은숙(미 62)	1000	이법식 (공 61)	300	김명철 (공 60)	200	권철수 (의 68)	200
	김은중 (상 59)	600	김은중(상 59)	400	이장길 (치 63)	50	리준우 (음 65)	200	.....	
	김자성 (의 79)	1000	김종섭 (문 66)	50000	이전구 (농 60)	500	선종철 (의 57)	100	북텍사스	
	김정빈 (공 66)	500	노 명호 (공 61)	1000	이창신 (법 57)	500	이강홍 (상 60)	200	황명규 (공 61)	200
	나두섭 (의 66)	200	박수경 (생 84)	300	장동석 (문 66)	200	이성길 (의 65)	100	.....	
	미주센터 (00)	2000	박원준 (공 53)	200	정균희 (의 65)	10000	이전구 (농 60)	500	시카고	
	민일기 (약 69)	500	박은숙 (미 62)	1000	정신 (대 92)	1000	한승순 (간 70)	150	김현주 (문 61)	100
	박제환 (문 75)	600	박종수 (수 58)	2000	정재훈 (공 64)	260	.....	.....	.....	
	서치원 (공 69)	1000	박종수 (수 58)	12000	최용완 (공 57)	100	알림	.....	.....	
	안혜정 (가 83)	200	박혜란 (음 72)	300	최종권 (문 59)	300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아직 정리중입니다. 혹시 명단에서 누락되는 실수가 있으면 11월호에서 바로 잡겠습니다.	.....	.....	
	이기준 (법 54)	500	방석훈 (농 55)	300	한귀희 (미 68)	2,000	.....	.....	.....	
	.....	.....	성주경 (상 68)	200	한홍택 (공 60)	200	.....	.....	.....	
.....	.....	송영두 (공 59)	200	홍훈정 (음 70)	300	.....	.....	.....		
.....	.....	신영찬 (의 63)	200	.....	.....	.....	.....	.....		

#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박은숙 (미 62)	50	.....	이원섭 (농 77)	150	강정수 (문 61)	100	박상근 (법 75)	100	이주희 (음 89)	100	
소진문 (치 58)	200	<b>텍사스</b>	.....	.....	권기상 (대 72)	80	박상길 (농 58)	100	이청광 (상 61)	100	
이성길 (의 65)	100	이석호 (농 78)	200	<b>워싱턴DC</b>	김건진 (문 62)	100	박제환 (문 75)	100	임승쾌 (문 66)	100	
이용락 (공 48)	1000	진기주 (상 60)	500	권철수 (의 68)	200	김경숙 (간 68)	100	박중수 (수 58)	100	임천빈 (문 61)	100
최희수 (문 67)	100	황명규 (공 61)	200	김동훈 (법 56)	200	김권식 (공 61)	100	박평일 (농 69)	100	임춘택 (상 68)	100
.....	.....	.....	.....	석균범 (문 61)	200	김기형 (상 75)	100	박해욱 (간 69)	100	정동구 (공 57)	100
<b>오레곤</b>		<b>플로리다</b>		.....	.....	김동석 (음 64)	100	방석훈 (농 55)	100	정상진 (상 59)	100
김상순 (상 67)	200	김중권 (의 63)	200	<b>메릴랜드</b>		김병목 (의 50)	100	서치원 (공 69)	100	정재훈 (공 64)	100
.....	.....	임필순 (의 54)	200	권철수 (의 68)	100	김병연 (공 68)	100	성주경 (상 68)	100	정평희 (공 71)	100
<b>워싱턴DC</b>		.....	.....	.....	.....	김병완 (공 58)	100	손영아 (음 85)	90	제영혜 (가 71)	100
고무환 (법 57)	200	<b>필라델피아</b>		<b>장학기금</b>		김상찬 (문 65)	100	손재옥 (가 77)	100	조화연 (음 64)	100
김동훈 (법 56)	200	송영두 (공 59)	200	<b>남가주</b>		김영 (수 63)	100	송세진 (치 78)	100	지인수 (상 59)	100
박홍우 (문 61)	200	이승공 (의 63)	200	박원준 (공 53)	300	김용진 (수 92)	100	신건호 (법 53)	100	지중근 (농 56)	100
석균범 (문 61)	200	정태광 (공 74)	100	.....	.....	김용현 (경 59)	100	신영찬 (의 62)	100	지형민 (수 61)	100
전철수 (의 68)	200	.....	.....	<b>시카고</b>		김은중 (상 59)	100	신응남 (농 71)	100	차중환 (사 54)	100
.....	.....	<b>하트랜드</b>		이용락 (공 48)	300	김익수 (수 53)	100	신호신 (약 00)	100	최경선 (농 68)	100
<b>일리노이</b>		차봉희 (의 51)	500	.....	.....	김재영 (농 62)	100	오인환 (문 63)	100	최용준 (수 81)	100
김현주 (문 61)	100	<b>모교발전기금</b>		<b>BRAIN NETWORK</b>		김지영 (사 69)	100	오홍조 (치 56)	100	최진석 (법 64)	100
.....	.....	.....	.....	<b>시카고</b>		김창수 (의 60)	100	윤상래 (수 62)	100	한귀희 (미 68)	100
<b>캐나다 밴쿠버</b>		<b>남가주</b>		이용락 (공 48)	200	남종우 (공 62)	100	이기준 (법 54)	100	한중철 (치 62)	100
장희순 (의 73)	388	박원준 (공 53)	200	.....	.....	노명호 (공 61)	100	이병준 (상 55)	100	한홍택 (공 60)	100
.....	.....	이범모 (치 74)	200	<b>평이사비(제30차 평의원 회의)</b>		라철삼 (문 64)	100	이상강 (의 70)	100	한효동 (공 58)	100
<b>커네티컷</b>		.....	.....	.....	.....	류재풍 (법 60)	100	이상숙 (가 74)	100	홍경삼 (문 61)	100
최창송 (의 52)	200	<b>워싱턴</b>		.....	.....	민병곤 (공 65)	100	이용락 (공 48)	300	홍훈정 (음 70)	100
김기훈 (상 56)	200	.....	.....	.....	.....	민일기 (약 69)	100	이중도 (공 66)	100	.....	.....



## 제 16대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노명호 회장 취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임원진들의 노고와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발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미주동창회 모든 회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제11대 미주동창회  
김은종 회장 (상대 59)



## 남가주지역

### 마켓

####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공대66)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 변호사

#### 한태호 변호사 법률 그룹

한태호(인문대 75) www.haanlaw.com

213-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A, CA 90010

####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사대 81)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 Law Office Of Kyung Hee Lee

이경희(인문대 83) imin@irminusa.net

213-385-4646

3435 Wilshire Blvd., #1110, LA, CA 90010

### 부동산

#### Team Sprit Realty

이종묘(간호대 69) jenniecelee@gmail.com

714-396-062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 식품/음식점

#### 자연나라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 해태 Usa

정정우(수외대 74)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vello, CA 90640

#### 복창동 순두부

이태로(법대 50)

213-382-6660

3575 Wilshire Blvd., LA, CA 90010

### 의료/병원

#### 실로암병원

정균희(의대 64)

213-386-8602

2528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 의료/동물병원

####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64)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 공인회계사

#### Kyung Moo Kim

김경무(공대 69) kyungmookim@yahoo.com

(213) 616-1390

114 Washing Blvd., #C, Marina Del Ray, CA 90292

#### SHIN-YONG KANG CPA

강신용(사대 73) 공인회계사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 Lee Kang Won CPA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600 Wilshire Blvd., #930, LA, CA 90010

#### GSK LLP

강호석(상대 81) cpa@hosukgangcpa.com

(213)380-5060 (LA, CA)

(714)530-3630 (Garden Grove, CA)

#### JUNCHANG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상대 68) choontaklim@gmail.com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 김원철 CPA

김원철(농대) kimandhwang@cs.com

213-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 기계 · 기술 · 전자

#### Link TV Media www.linkboxusa.com

김원탁(공대 65) linkboxusa@gmail.co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jchung@taycoeng.com

(213)383-8553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 76)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 자동차 · 서비스

##### A.P.W. 자동차부품

서동영(사대 60)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 기타

####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818-720-2373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 Gilbert Drugs

최무식(약대 66)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 뉴욕지역

### 공인회계사

#### KI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상대 64)

1430 Broadway St., 306, New York, NY 10018

### 리테일

####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www.nycgolfcenter.com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 변호사

####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petershinesq@gmail.com

718-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l #UI-2 Flushing, NY 11358

### 금융

#### Edward Jones Investments-

윤의규(상대 82) edwarded.yun@edwardjones.com

201-978-7055

560 Sullivan Ave St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 의료/병원

####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changhsuk@aol.com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 이창석 내과

이창석(의대 72) cleel34597@aol.com

718-762-4400

40-5 Browne St., Flushing, NY 11354

####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haeahm@aol.com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t., 1A, New York, NY 10021

####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229-1188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 박종효 소아과

박종효(의대 79)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richardymoonmd@yahoo.com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의대 73)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공대 71)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 김자성 정신과

진료 분야

소아부터 노년 정신의학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

부부 상담

타주에서도 원격진료 가능

## 노명호 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김 자 성(의대 79)

TEL 213.797.5953

505 SHATTO PL. #204, LOS ANGELES, CA 90020



**SHATTO**  
GALLERY

TEL 213.277.1960 고석자 (문리대 72)

3130 WILSHIRE BLVD. #104, LOS ANGELES, CA 90010

WWW.SHATTOGALLERY.COM / SHATTOGALLERY@GMAIL.COM

## 제16대 미주동창회

**회장 노명호(공)**

▷고문: 김종섭(문), 박종수(수), 주중광(약)

**차기회장 이상강(의)**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정호(법)

**명예회장 신응남(농)**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집행부**

▷사무총장: 강호석(상)

▷사무장: 홍선례(음)

▷총무국장: 이호진(간)

▷재무국장: 이윤중(미)

▷IT 국장: 심재호(공)

▷섭외국장: 안혜정(가)

▷문화국장: 홍선례(음)

▷홍보국장: 김자성(의)

**회보 발행인 노명호(공)**

▷편집 고문: 박용필(문), 김정현(공)

▷편집장: 신복례(인)

▷지부 편집위원: 이경애(문), 최승희(사), 이주희(음), 박승현(음), 한정희(미), 허유선(가)

**논설 위원**

▷논설 위원: 정태영(문), 문성길(의), 박평일(농), 정홍택(상), 김지영(사), 박제환(문), 강신용(사), 이종호(인), 변우진(인), 김학천(치)

**회칙위원회**

위원장: 김병연(공)

위원: 김병연(공), 김용현(상), 김지영(사), 성주경(상), 이민언(법), 조화연(음),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장학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포상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경무(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213)908-5586 | 이메일 news@snuua.org | 웹사이트 www.snuua.org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캐나다 밴쿠버 (Jan~Dec)**  
 장희순(문리 75) T: (778)990-6589  
 sphro17@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록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용문(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차재호(농공학 84) T: (651)769-5343  
 jaehocha@yahoo.com  
 차기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최용준(수의대 81) T: (818)450-7868  
 yongjunechoi6080@yahoo.com  
 차기 회장 박제환(문리 75) T: (323)229-3369  
 jaycpa2000@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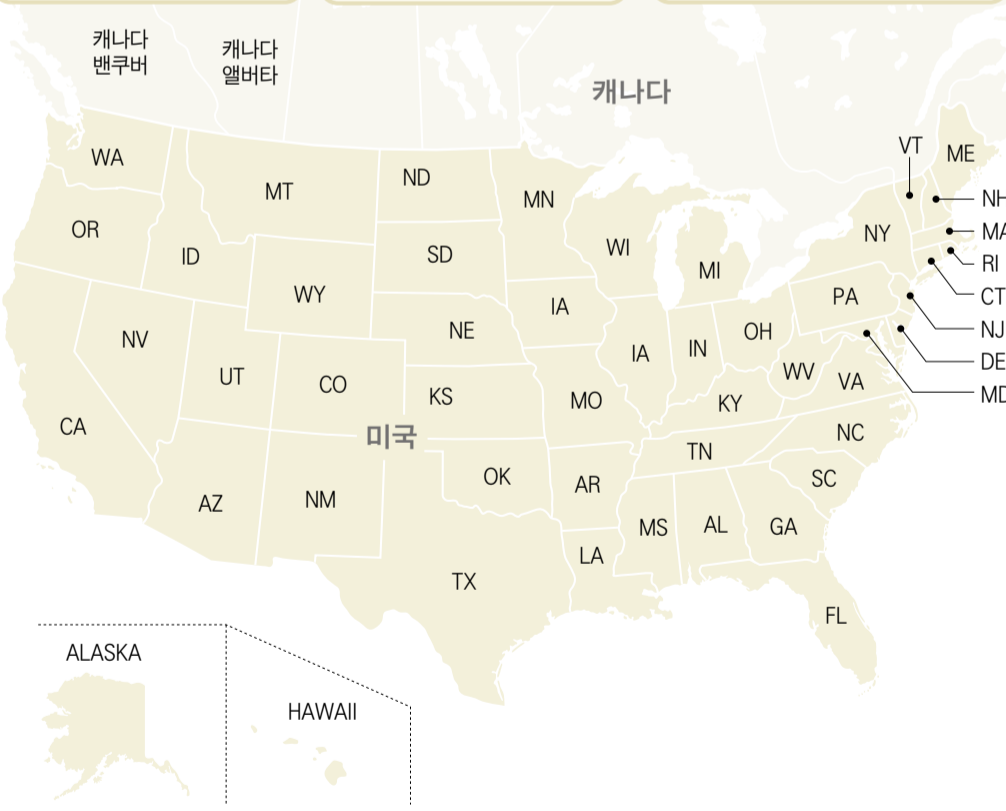
**오레곤 OR/ID (Jan~Dec)**  
 전병택(상대 65)  
 bryanchon@gmail.com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시카고 IL/IN/WI/MI (Jan~Dec)**  
 김윤하(공대 66) snuaachicago@gmail.com  
 www.snuuaachicago.org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김유경(음대 72) T: (781)223-4411  
 YkimLC@yahoo.com  
 차기 회장 임영호(공대 72) 978-490-0118  
 Ynghlim@yahoo.com

**북가주 SANFRANCISCO (Jan~Dec)**  
 임준원(공대 77) T: (408)220-4260  
 joonwlim@gmail.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금영천(약대 72)  
 yckum52@gmail.com  
 차기 회장 김정필(공대 71)  
 jaypkim@keiusa.com

**샌디에이고 SAN DIEGO (Nov~Oct)**  
 유재호(공대 90) T: (469)387-7922  
 blue9071@g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박상근(법대 75) T: (703)447-8175  
 sangkuenpark@gmail.com  
 차기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이명자(간호 74)  
 drmialee@gmail.com

**커네티컷 CT**  
 박용희(상대 83) T: (203)767-8187  
 yhpatax@g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이성숙(가정 74) T: (610)417-4789  
 ssh1120@g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 77) T: (808)956-2611  
 nsung@hawaii.edu

**텍사스 LA/DALLAS (Jan~Dec)**  
 강성호(수의 81) T: (214)215-4447  
 oah9999@yahoo.com

**애리조나 ARIZONA**  
 오윤환(공대 56) T: (520)271-2601  
 youn.oh@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김상호(공대 86) T: (856)386-1094  
 kimsh@ornl.gov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구자동(상대 70) T: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Sep~Aug)**  
 이치현(약대 77) T: (913)814-9452  
 leech@umkc.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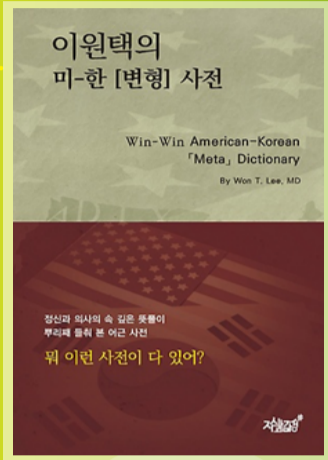
**조지아 GA/AL/MS (Jan~Dec)**  
 김재호(공대 80) T: (404)372-2621  
 jhkros@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상대 68) T: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

정신과 의사 (의대 '65)

# 이원택의 미·한 변형 사전

21세기 미국인이 생활 현장에서 쓰는 영어를 (어원 추적) (파생어별 정렬) (소설식 풀이)를 통해 [한글 발음] [한글 해석] [대체 한글] 로 표기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처방} 사전이다.



IT 용어, 신조어·콩글리시 등 부록 22편  
총 1236쪽 양장제본, 정가 35불

구매처: LA 반디서점  
(213)739-8107, [bandibookus.com](http://bandibookus.com)



[www.yongsusanla.com](http://www.yongsusanla.com)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since 1999 **듀오** USA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 결혼해듀오



LA 213-383-2525

NY 201-947-2525

[www.duouusa.net](http://www.duouusa.net)



## 만만한 기부

### 지난 1년간의 이야기, 다섯번째

2016년 3월 1일에 시작한  
만만한 기부가 다섯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서울대를 사랑하는 후원자분들이 전해주시는 나눔으로  
지난 5년간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선한 인재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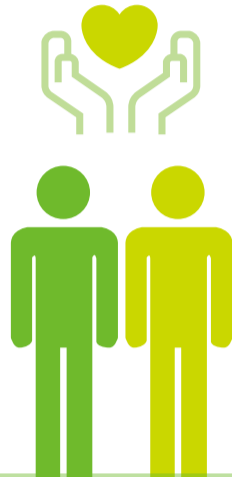
계속해서 후배들이 온전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발전기금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한 인재 장학생**

**1,621명**  
(2020년 기준)

## 만만한 기부 전체 참여건 수

♥ 6,025건



만만한 기부에 공감하고 동참해주신  
미주재단 기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만만한 기부 모금액

♥ 총 110억  
14,817,629원  
(2016년 3월 ~ 2021년 2월)



### “만만한 기부” 캠페인 선한인재 장학금은 서울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부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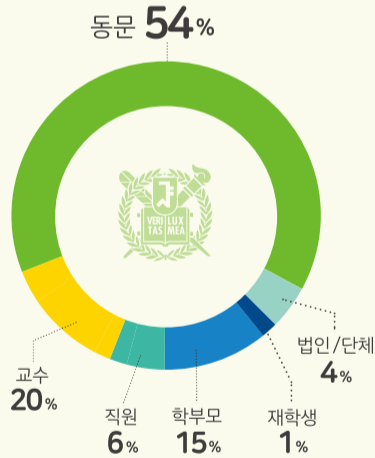
'만만한 기부'를 통해 지원되는 선한 인재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마중물같은 역할을 합니다.  
펄펄가 물을 퍼 올리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하듯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비(매월 30만원)가 필요합니다.

'만만한 기부' 캠페인으로 모금된  
선한 인재 장학금은  
서울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부금 입니다.

\* 마중물[명사] 펄펄질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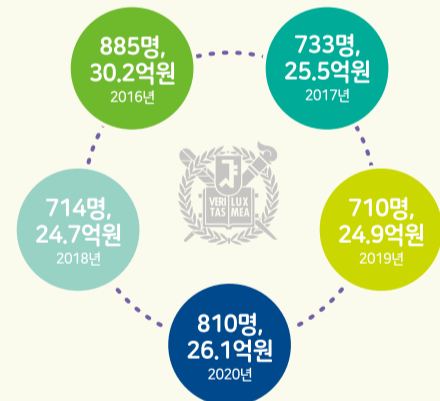
### 본교 관계에 따른 참여율

동문, 교수, 학부모, 직원들의 후원은 큰 힘이 됩니다.



만만한 기부는 많은 동문들의 참여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 및  
직원들의 참여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 선한 인재 장학금 지급 현황



서울대학교는 만만한 기부로 모아진  
기부금과 법인 회계 등의 예산으로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 후 휴대폰으로 찍어  
america@snu.ac.kr로 메일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만만한 기부 간단 참여신청서 [MMH21-10]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학과(특별과정): \_\_\_\_\_

입학연도(기수): \_\_\_\_\_

약정금액:  정기후원 매월 \_\_\_\_\_ 원

일시후원 일금 \_\_\_\_\_ 원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el +1-212-768-9144 Fax +1-212-768-4494 E-mail kenneth@klgroup.cpa

[LA]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1-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Seoul]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71-8004 Fax +82-2-872-4149 E-mail snuf@snu.ac.kr